
II. 보험 동향

-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5년 이후 둔화되었으나, 2019년에는 상승세를 나타냄
 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1% 증가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6% 증가함
 - 2019년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은 퇴직연금 확대와 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은 2016년과 2017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냄
 -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.8% 증가한 117.3조 원을 기록함
 - 보험금 지급 증가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실적 둔화가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의 주요인임
-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사업비)은 2018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, 2019년에는 감소세가 심화됨
 -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.0% 증가한 95.6조 원을 기록함
 - 그러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도 각각 전년 대비 6.7%, 9.3% 증가함에 따라 손해보험 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 악화가 가속화됨
- 2019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손실 확대와 투자영업이익 감소로 전년 대비 22.7% 감소하였으며, 손해보험 당기순이익도 손해율과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31.7% 감소함
 - 생명보험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됨
 -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2018년 103.0%에서 2019년 105.7%로 상승함
- 생명보험은 2019년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, 중소형사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됨
 - 손해보험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되고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축소됨

1. 성장성

〈보험회사의 성장성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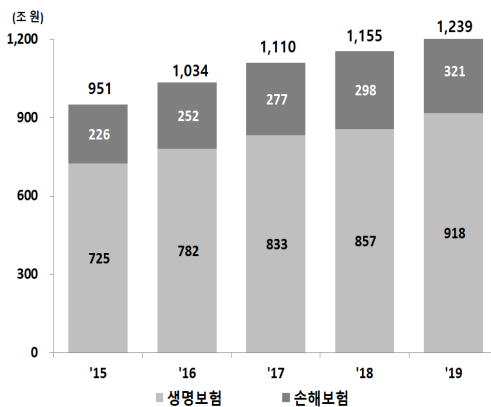
-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
 -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
 -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, 자산운용(투자영업)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
 -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
-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,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

가. 자산

■ 2019년 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1,239조 원으로, 전년 대비 7.2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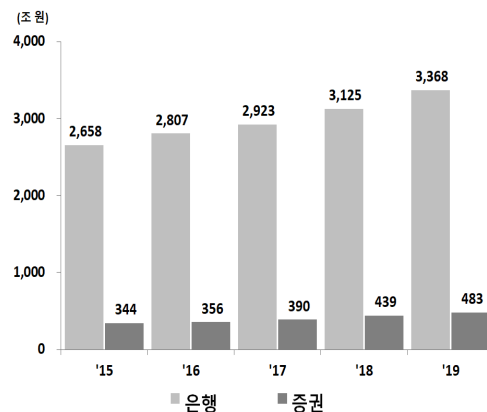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총자산은 918조 원이며, 손해보험 총자산은 321조 원임
- 은행과 증권 산업의 총자산은 각각 3,368조 원과 483조 원임

〈그림 1〉 보험산업 자산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〉 은행 및 증권 자산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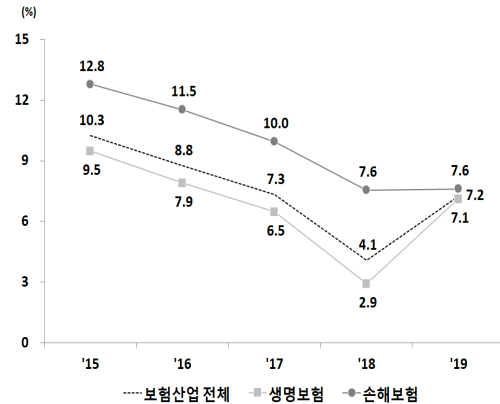
■ 보험산업의 자산성장률은 2015년 이후 둔화되었으나, 2019년에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

○ 2019년 말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1% 증가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7.6% 증가함

- 퇴직연금의 확대,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의한 책임준비금 증가, 기타부채 증가,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확대가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 기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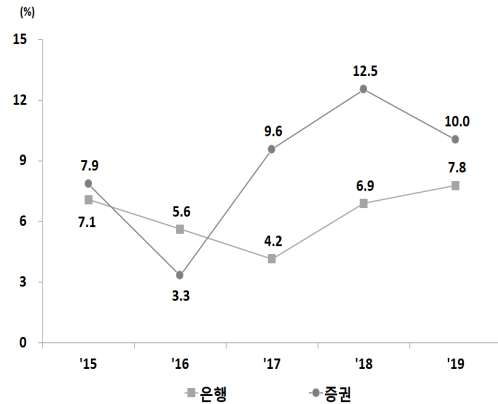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은행의 자산성장률은 7.8%로 전년보다 0.9%p 상승하였으며, 증권 자산성장률은 10.0%로 전년보다 2.5%p 하락함

〈그림 3〉 보험산업 자산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〉 은행 및 증권 자산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금융감독원

■ 생명보험의 경우 2019년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산성장률 상승세가,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자산성장률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¹⁾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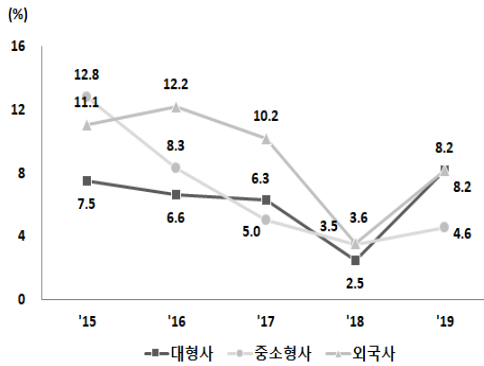
○ 생명보험의 경우 2019년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산은 모두 전년 대비 8.2% 증가하였으나 중소형사의 자산은 전년 대비 4.6% 증가에 그침

○ 손해보험의 경우 2019년 외국사의 자산성장률이 14.7%로 가장 높았으며, 중소형사가 9.1%, 대형사가 6.7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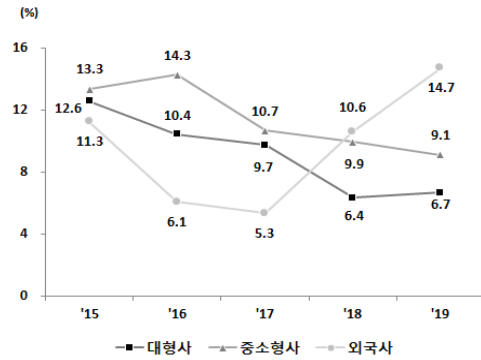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,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
2)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,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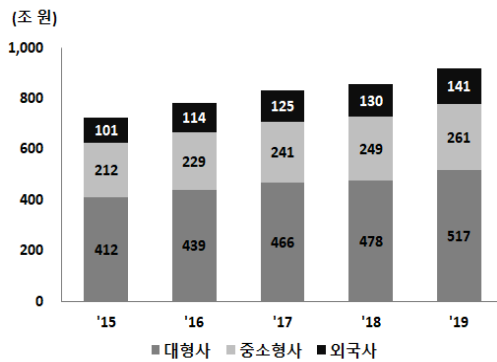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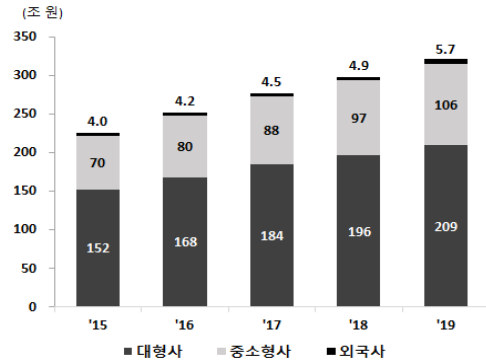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6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〈그림 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〈그림 8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주: 1)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, 중소형사는 12개사, 외국사는 9개사임

2)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, 중소형사는 10개사, 외국사는 17개사임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생명보험 성장 요인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에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, 기타부채 증가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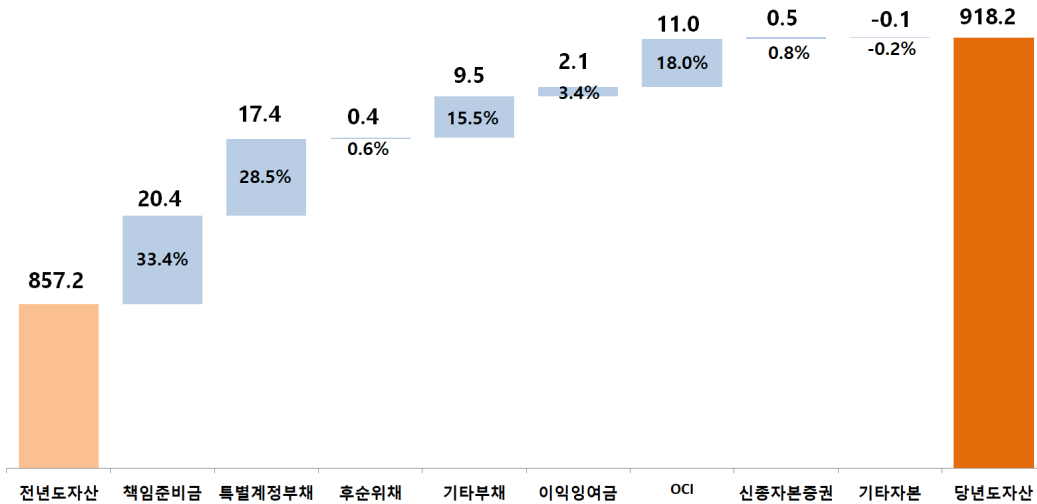
○ 책임준비금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33.4% 자산 성장에 기여하였으며, 특별계정 부채는 28.5% 자산 성장에 기여함

○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 하락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 성장에 18.0% 기여함

○ 기타부채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증가하여 자산 성장에 15.5% 기여함

〈그림 9〉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〉

- 수입보험료(원수보험료)와 부리이자(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)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, 보험금(발생손해액), 사업비 및 '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'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
 -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"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 + 적립이자 -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 + 기타(LAT 추가적립 등)"로 나타낼 수 있음
 -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'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'이 드러나지 않음
-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
 - 손익계산서로부터 '영업이익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책임준비금전입액' 이므로
 - '책임준비금전입액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'인데,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
 - 따라서, 책임준비금 증감

$$\begin{aligned}
 &= \text{책임준비금전입액} + \text{기타} \\
 &= [\text{보험영업이익} + \text{투자영업이익} - \text{영업이익}] + \text{기타} \\
 &= [(\text{수입보험료} - \text{보험금} - \text{사업비}) + (\text{재보험수익} - \text{재보험비용}) + \text{투자영업이익} \\
 &\quad - \text{영업이익}] + \text{기타} \\
 &\circ \text{공시된 회계상의 '투자영업이익} - \text{영업이익'은 대략 '적립이자} - (\text{위험률차익} + \text{사업비차익}) \\
 &\quad \text{으로 이해할 수 있음}
 \end{aligned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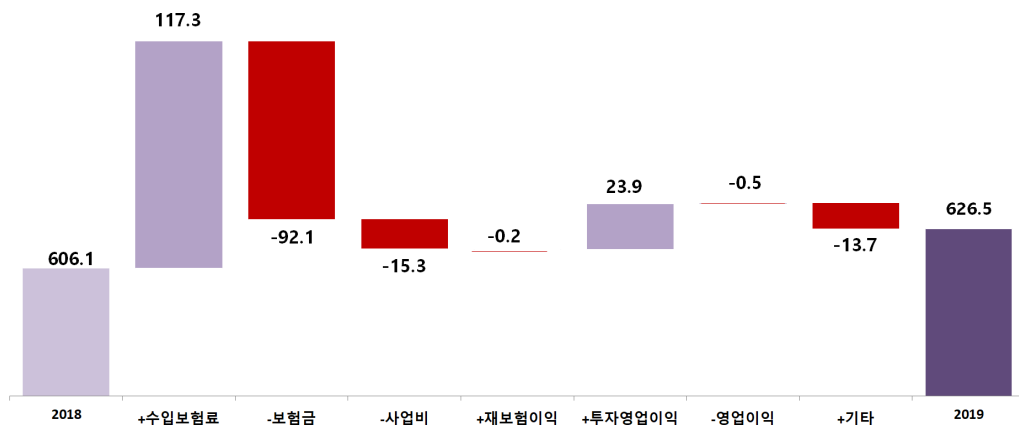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 책임준비금

■ 2019년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20.4조 원 증가하였는데, 수입보험료가 보험금과 사업비³⁾ 지출액을 소폭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하였고, 투자영업이익도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

○ 2019년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은 23.9조 원 흑자를 기록하여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

〈그림 10〉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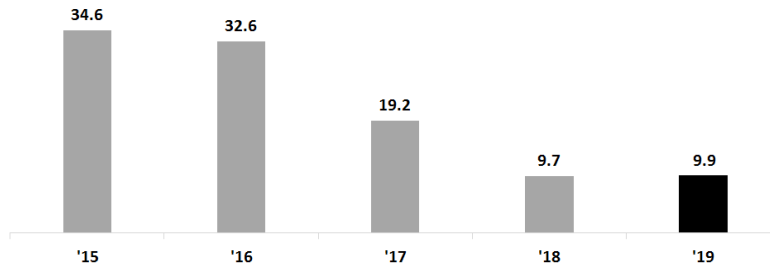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전 전 사업비임

-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은 2019년 9.9조 원으로 전년 대비 0.2조 원 증가하였으나, 2016년과 2017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

〈그림 11〉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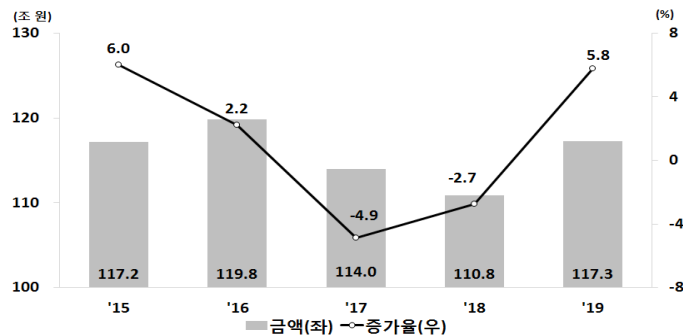

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가) 생명보험 수입보험료

-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5.8% 증가한 117.3조 원을 기록함
- 보장성보험은 중·저가형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의 역성장은 계속되고 있음
 - 퇴직연금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, 변동 폭이 큰 퇴직 연금을 제외하면 수입보험료 역성장 추세가 지속됨

〈그림 1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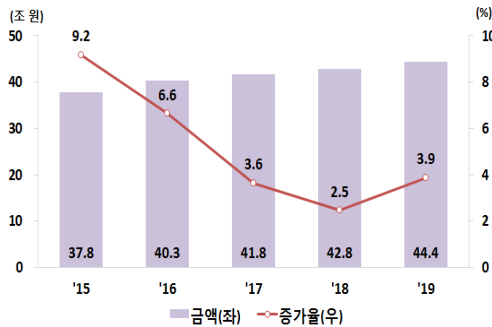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종목별로 보면,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, 저축성보험은 역성장을 지속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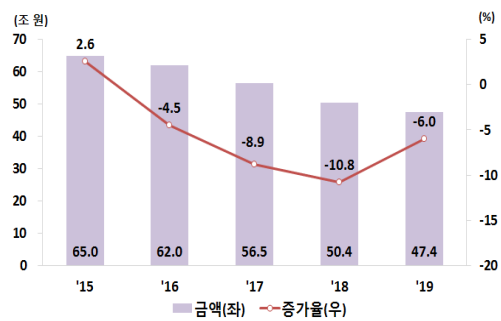
- 보장성보험은 치매보험,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등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3.9% 증가한 44.4조 원을 기록함
- 저축성보험은 저금리로 인한 판매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6.0% 감소한 47.4조 원을 나타냄
- 퇴직연금은 일부 회사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46.1% 증가한 24.6조 원을 나타냄
- 일반단체보험은 전년 대비 0.6% 증가한 0.8조 원을 기록함

〈그림 13〉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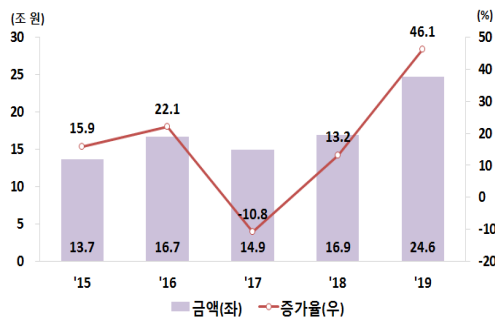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4〉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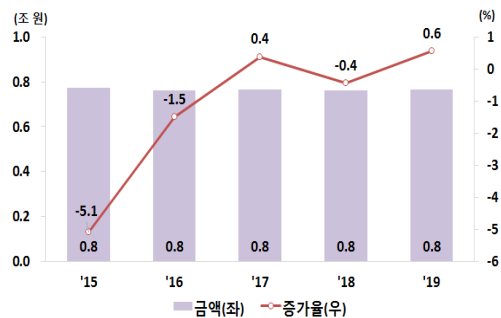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5〉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6〉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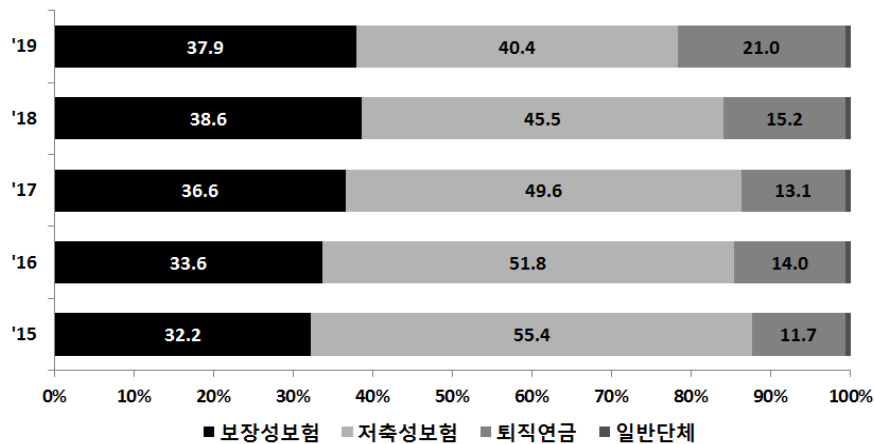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저축성보험 감소세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

-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2015년 55.4%에서 2019년 40.4%로 축소됨
- 반면,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32.2%에서 37.9%로 확대되었으며,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 비중도 11.7%에서 21.0%로 확대됨

〈그림 17〉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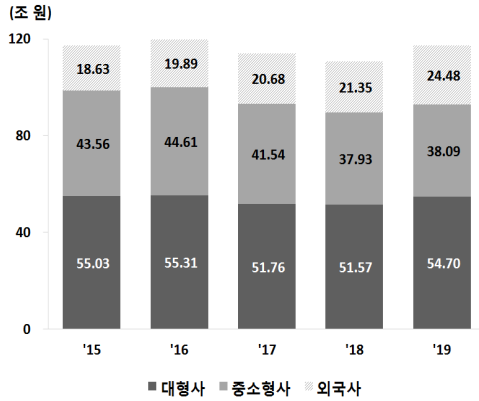


주: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19년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, 중소기업사 수입보험료는 저성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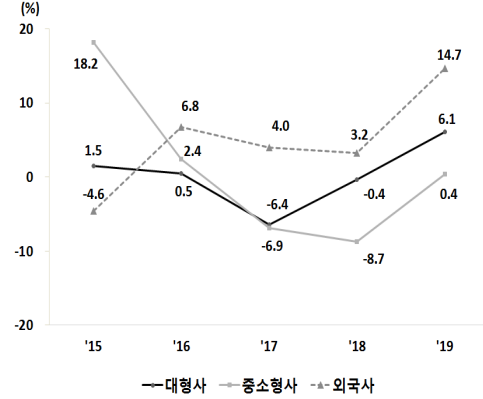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외국사의 수입보험료는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및 중·저가형 건강보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14.7% 증가함
- 2019년 대형사 수입보험료도 퇴직연금 확대에 힘입어 6.1% 증가함
- 그러나 중소기업사 수입보험료는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위축으로 0.4% 증가에 그침

〈그림 1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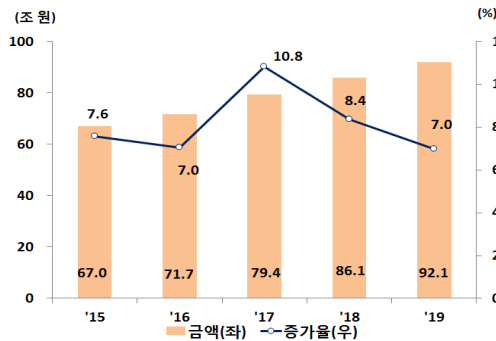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과 사업비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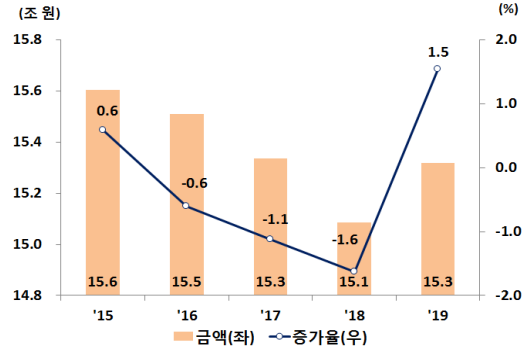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저축성보험 만기 지급이 늘어나 2019년 전년 대비 7.0% 증가한 92.1조 원을 기록함
- 생명보험의 사업비는 2015년 이후 신규 판매 위축으로 감소하였으나, 2019년에는 기저 효과와 소폭의 신규 판매 회복세로 전년 대비 1.5% 증가한 15.3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20〉 보험금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1〉 사업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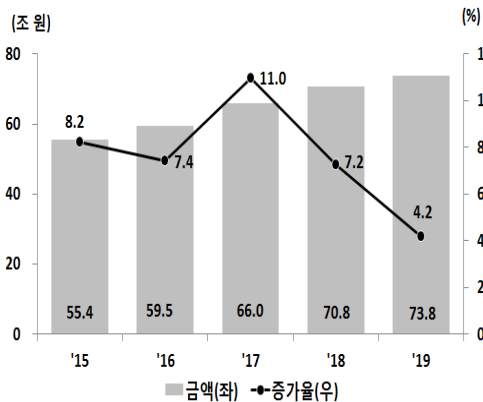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2019년 생명보험 보험금 중 환급금과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, 사망 및 상해 보험금과 배당금은 전년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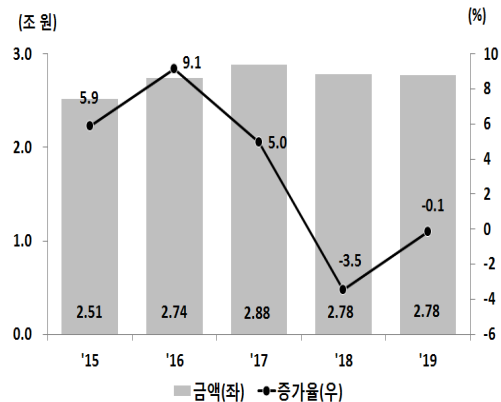
○ 저축성보험 만기 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있어, 저축성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가 확대됨

〈그림 22〉 환급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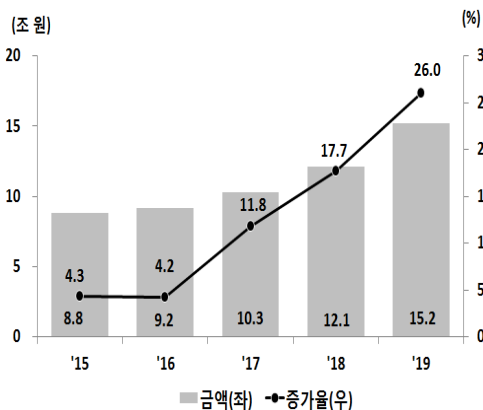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3〉 사망 및 상해 보험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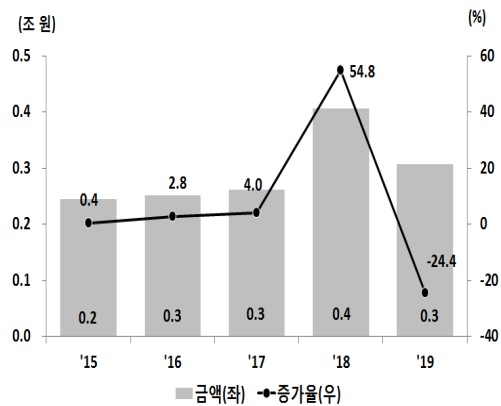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4〉 만기 및 퇴직 보험금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5〉 배당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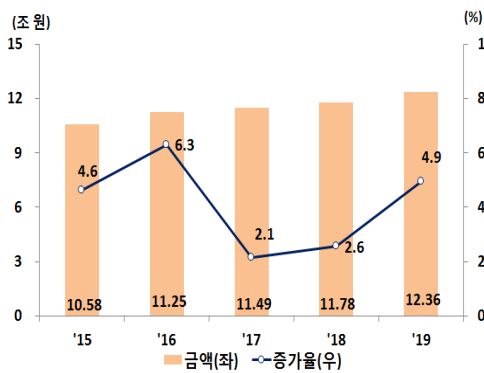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생명보험산업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신규 판매 둔화로 감소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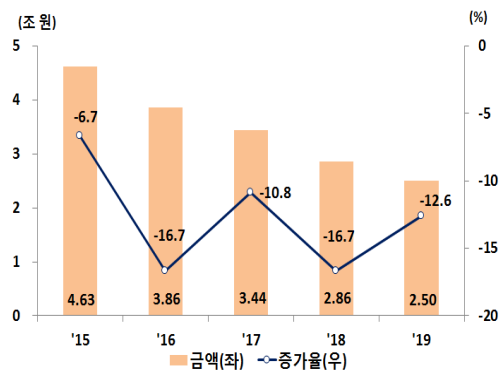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소폭의 신규 판매 회복세로 인하여 전년 대비 4.9% 증가함
- 반면, 2019년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.6% 감소한 2.5조 원을 기록함

〈그림 26〉 보장성보험 사업비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7〉 저축성보험 사업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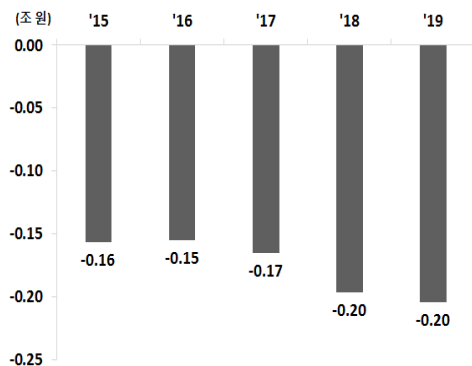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) 재보험 이익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.2조 원 적자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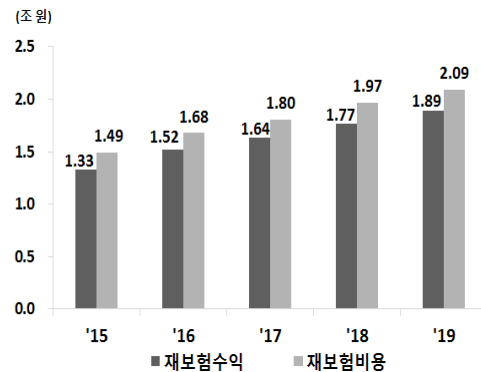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1.89조 원과 2.09조 원임

〈그림 28〉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9〉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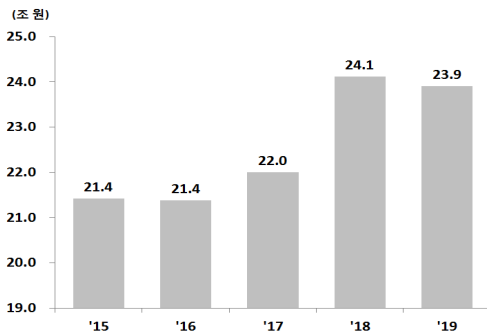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)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■ 2019년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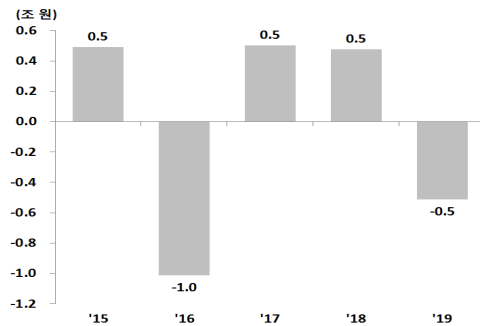
- 2019년 투자영업이익은 23.9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2018년 주식처분이익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0.2조 원 감소함
- 2019년 영업이익은 금리 하락으로 보증준비금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.0조 원 감소한 0.5조 원 적자를 기록함

〈그림 30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1〉 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■ 생명보험산업의 후순위채 규모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, 2019년에도 전년 대비 0.3조 원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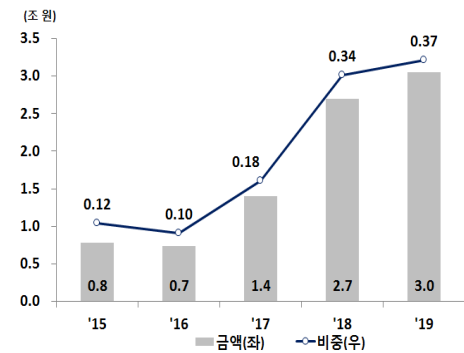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2016년 0.7조 원에서 2019년 3.0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.1%에서 0.37%로 확대됨
- 자본 확충을 위하여 RBC비율이 낮은 생명보험회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■ 생명보험 기타부채⁴⁾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, 2019년에는 확대되고 있음

4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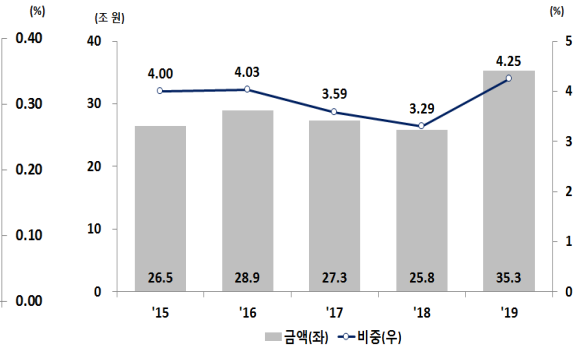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기타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확대로 2018년 3.29%에서 2019년 4.25%로 증가함

〈그림 32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3〉 기타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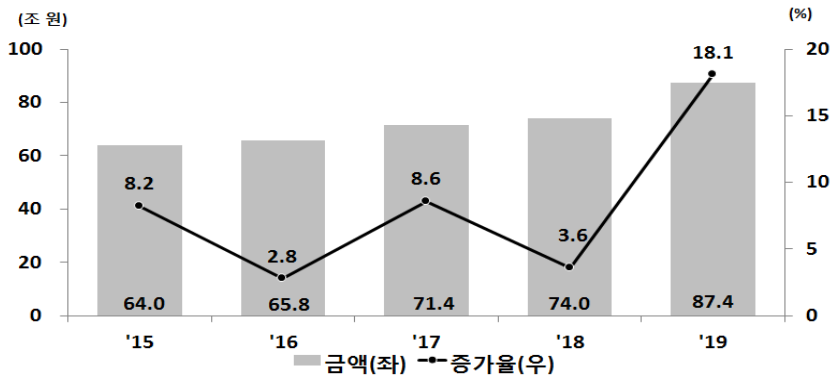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생명보험 자본

- 2019년 생명보험산업 총자본은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증가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전년 대비 18.1% 증가한 87.4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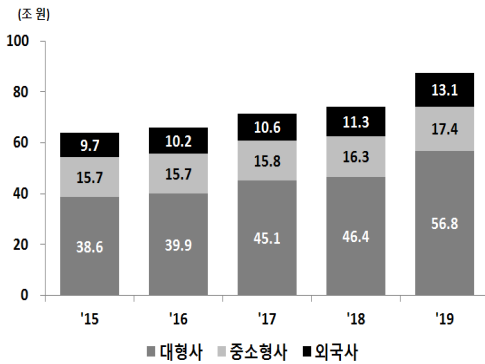
- 대형사 총자본이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22.5% 증가하였으며, 중소형사와 외국사 총자본도 각각 전년 대비 15.8%, 7.0% 증가함

〈그림 34〉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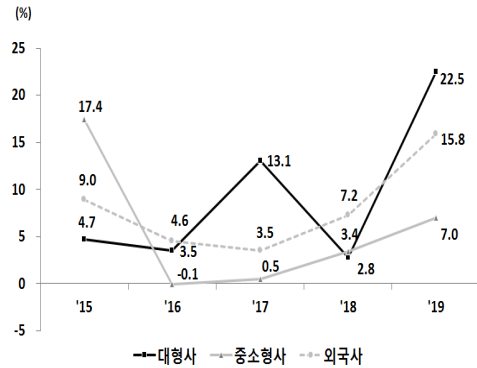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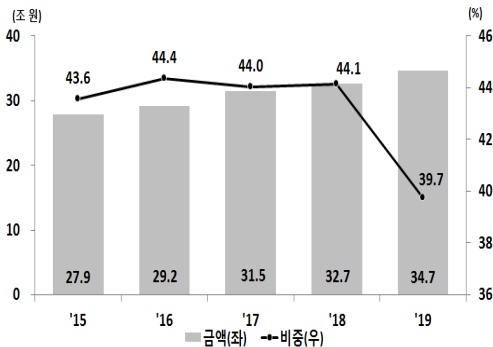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019년 생명보험의 이익잉여금과 기타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된 반면,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확대됨

-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2018년 22.5조 원에서 2019년 33.5조 원으로 확대됨
- 2019년 신종자본증권은 전년 대비 0.5조 원 증가한 3.5조 원을 나타냈으며, 총자산에서 4.0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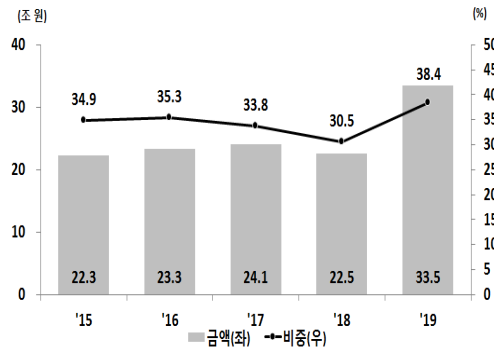
- 특히, 한화생명에는 2019년 7월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(K-ICS) 시행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위해 5,000억 원 규모(발행금리: 3.69%)의 신종자본증권(영구채)을 발행한 바 있음

〈그림 37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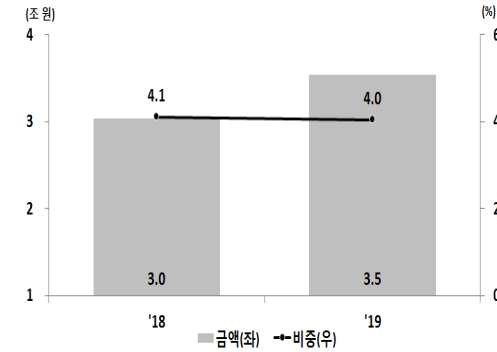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8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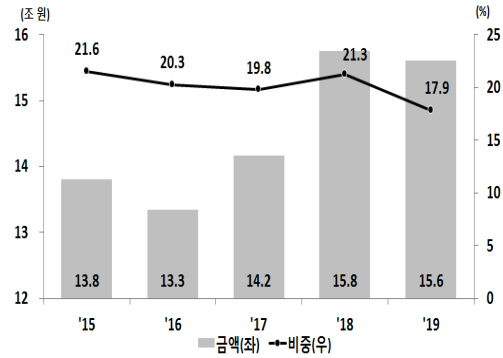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9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0〉 기타자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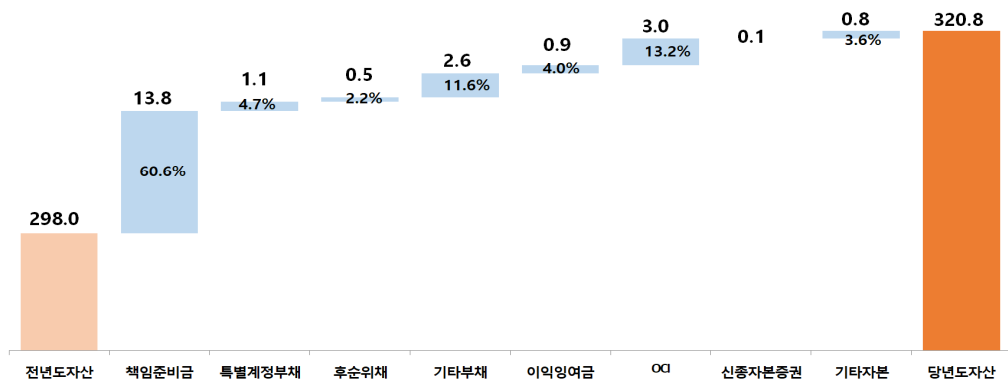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손해보험 성장 요인

- 손해보험산업의 2019년 말 총자산은 2018년 말 대비 22조 7,107억 원 증가하였는데, 책임준비금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, 기타부채 순으로 성장에 기여함
-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증가에 책임준비금 증감은 60.6%로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과 기타부채가 각각 13.2%와 11.6% 기여함

〈그림 41〉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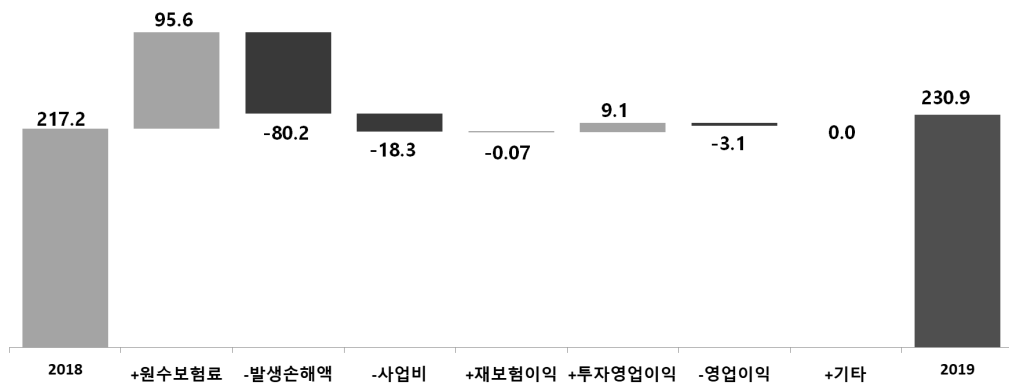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) 손해보험 책임준비금

- 2019년 말 책임준비금은 전년 대비 13조 7,578억 원 증가하였는데, 발생손해액과 사업비⁵⁾ 지출이 원수보험료를 2조 9,383억 원 초과하여 책임준비금 증가를 억제시킴
- 다만, 투자영업이익 증가가 책임준비금 증가에 9조 1,294억 원 기여함

〈그림 42〉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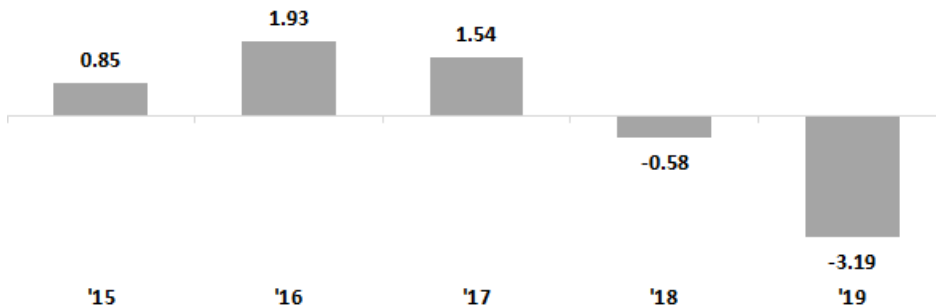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-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사업비)은 2018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, 2019년에는 마이너스 상태가 심화됨

〈그림 43〉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이연전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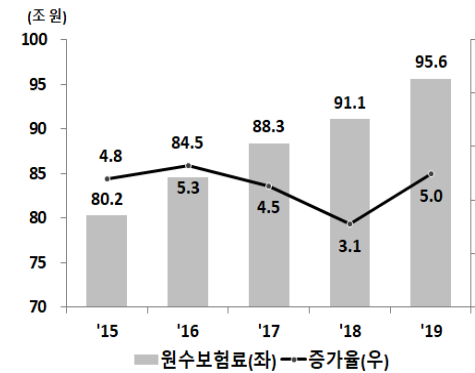
5) 여기서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전 사업비임

가) 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■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, 자동차보험, 퇴직연금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5.0% 증가한 95.6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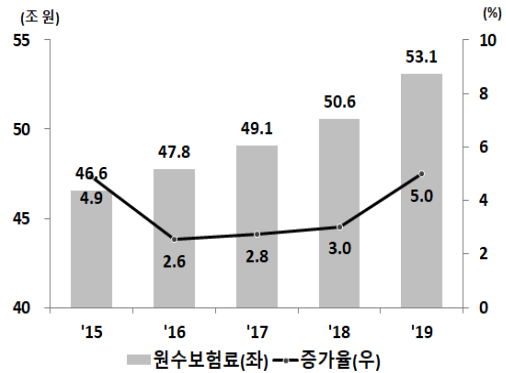
-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의 판매 경쟁 확대로 전년 대비 5.0% 증가한 53.1조 원을 기록함
-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5.1% 증가한 17.6조 원을 나타냄
-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과 보증보험 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3.9% 증가에 그친 9.9조 원을 기록함
-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6.4% 줄어든 3.3조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,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9.3% 증가한 11.8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44〉 원수보험료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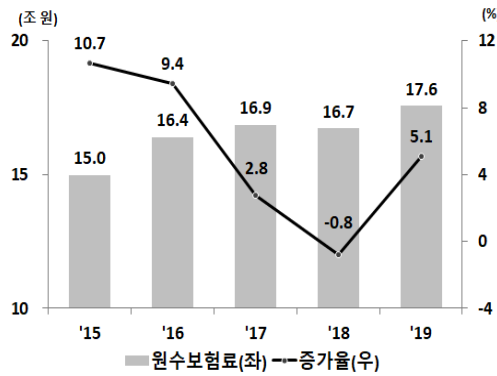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5〉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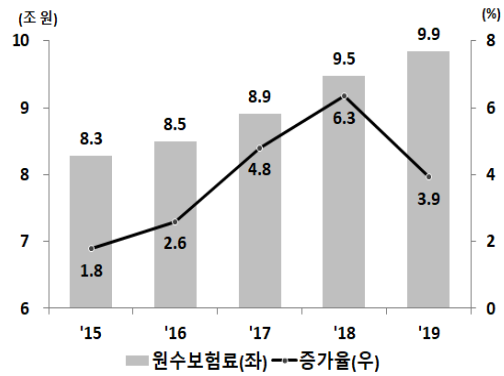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6〉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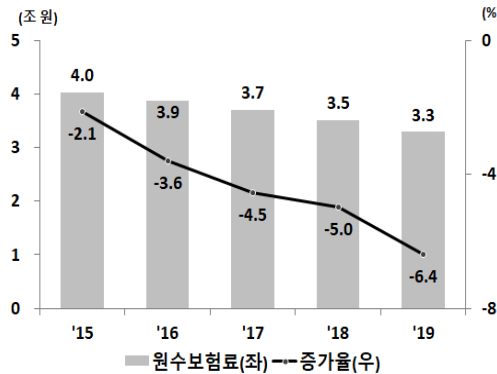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7〉 일반손해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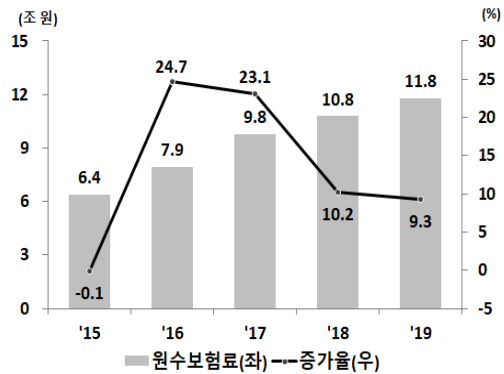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8〉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9〉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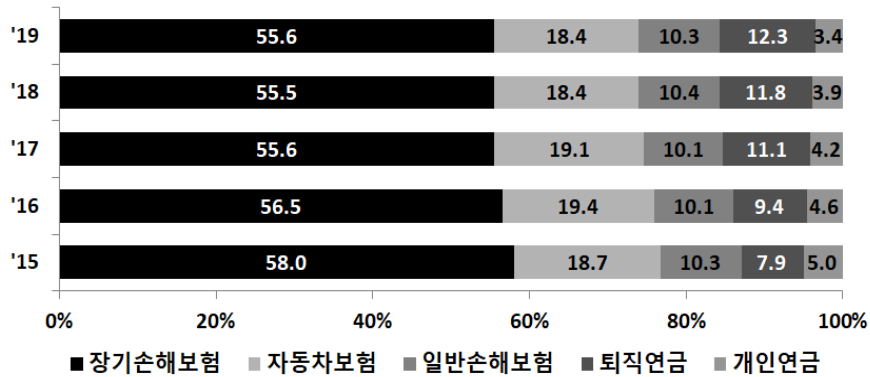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손해보험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이 확대되고 개인연금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

-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015년 7.9%에서 2019년 12.3%까지 확대된 반면, 개인 연금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같은 기간 5.0%에서 3.4%로 축소됨
- 2019년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55.6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자동차 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18.4%, 10.3%를 나타냄

〈그림 50〉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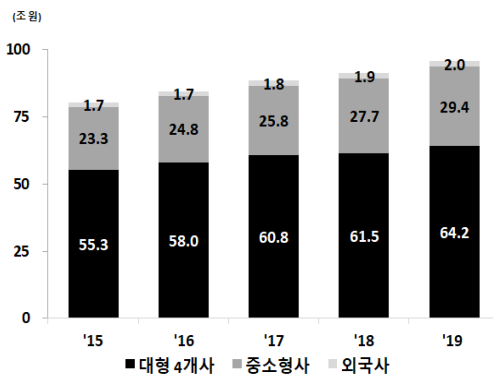


주: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19년 대형사와 외국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,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년보다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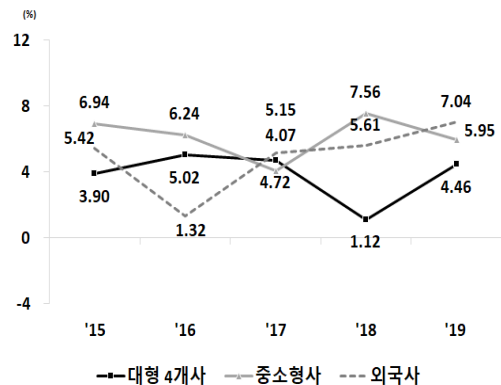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대형사, 중소형사, 외국사의 전년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4.46%, 5.95%, 7.04%임

〈그림 5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2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

■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대비 6.7%, 9.3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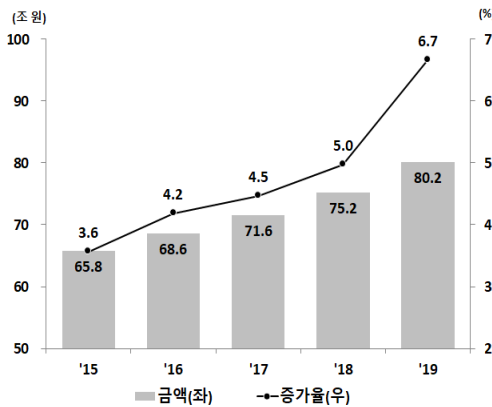
○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이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증가하고, 장기손해 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보험사고 증가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확대됨

-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국내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확대됨

○ 손해보험 전체 사업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사업비가 판매경쟁 심화로 크게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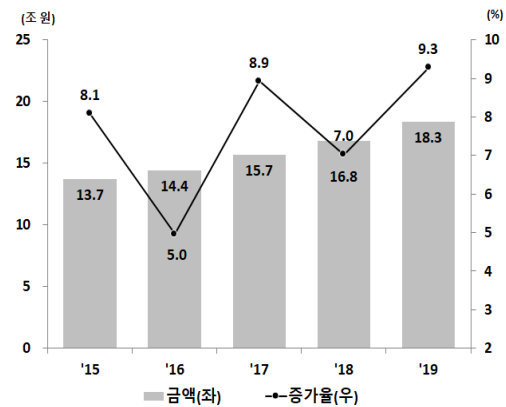
- 단,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사업비는 신규 판매 위축으로 감소하였으며, 자동차 보험 사업비도 인터넷, 모바일 이용 확산으로 감소세를 보임

〈그림 53〉 발생손해액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4〉 사업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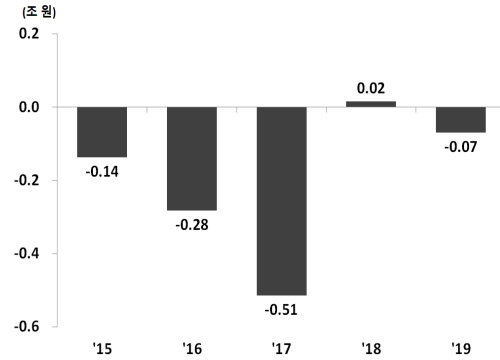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) 재보험 이익

■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.07조 원 적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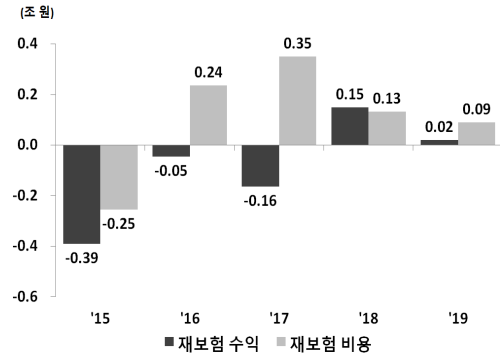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재보험비용은 전년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나 재보험수익이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기 때문임

〈그림 55〉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6〉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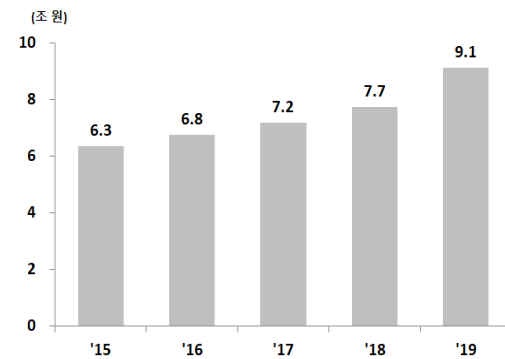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)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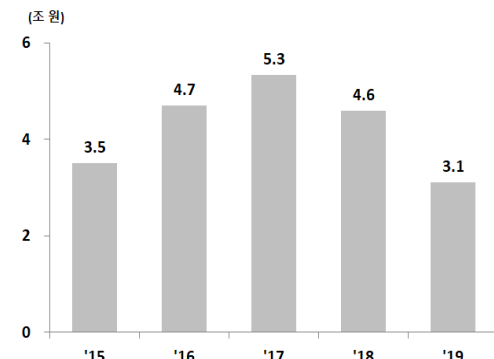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 이익과 이자 및 배당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1.4조 원 증가하였으나, 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1.5조 원 감소함

〈그림 57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8〉 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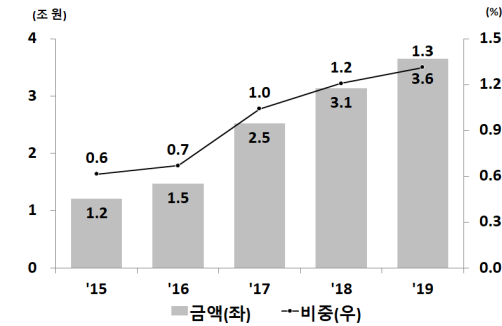
2)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- 2019년 말 기준 손해보험산업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⁶⁾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됨

6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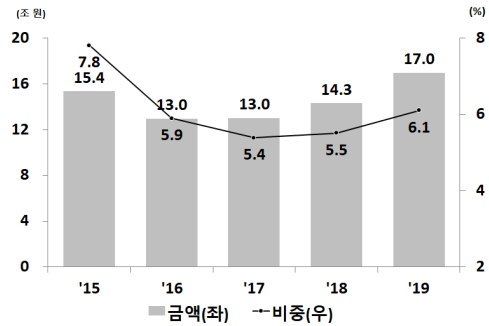
- 2019년 말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대비 0.5조 원 증가한 3.6조 원을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에 비하여 0.1%p 확대된 1.3%를 기록함
- 2019년 기타부채는 전년 대비 2.7조 원 증가한 17.0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.1%로 전년 말 대비 0.6%p 확대됨

〈그림 59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0〉 기타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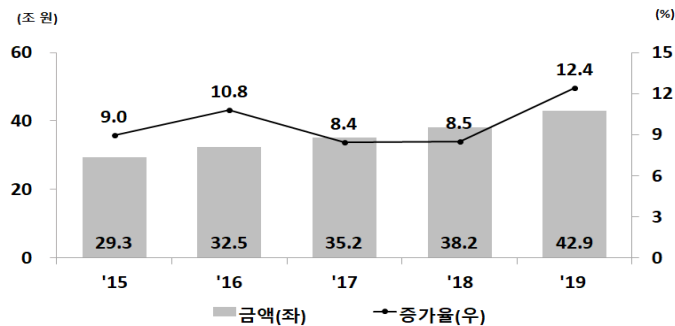


주: 1) 기타부채는 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값임
 2)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) 손해보험 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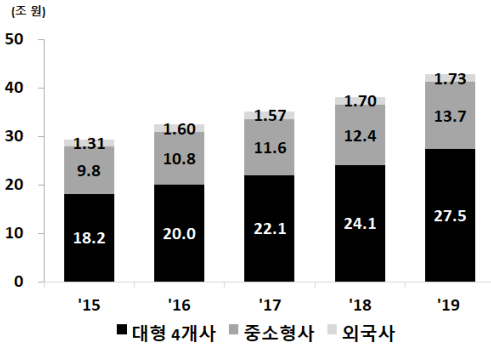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.4% 증가한 42.9조 원을 기록함
- 대형사와 중소형사 총자본은 각각 전년 대비 13.9%, 10.9% 증가한 반면, 외국사 총자본은 전년 대비 2.1% 증가에 그침

〈그림 61〉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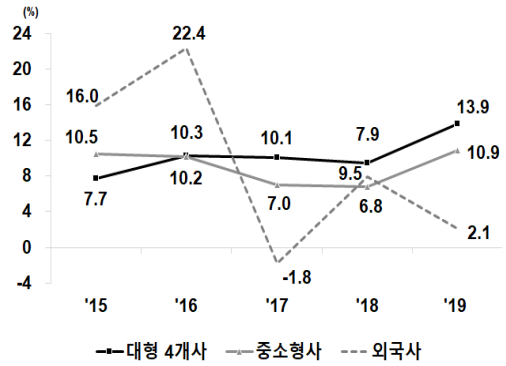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2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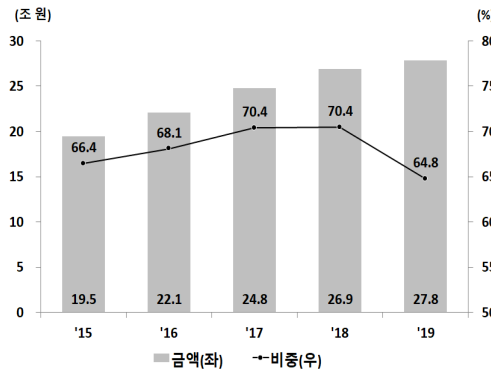
〈그림 63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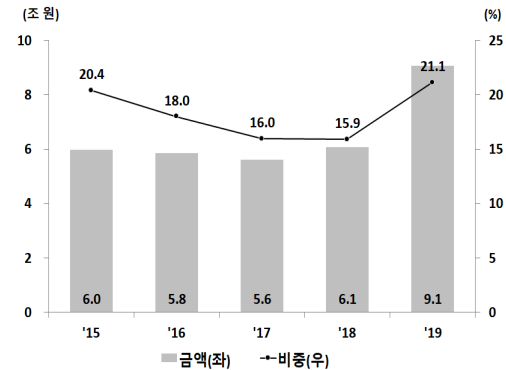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, 이는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
- 반면,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과 신종자본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됨

〈그림 64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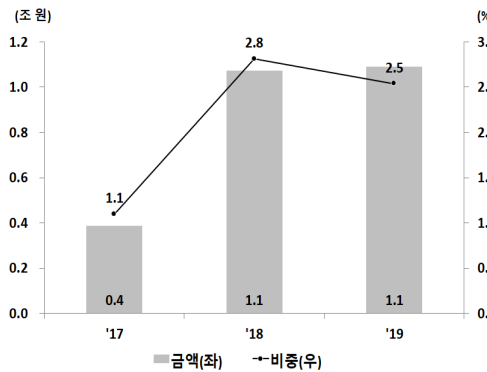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5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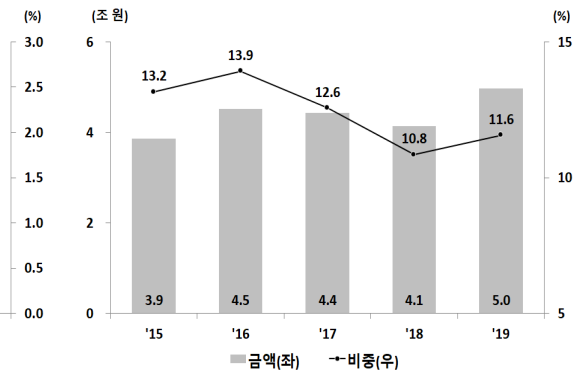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6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7〉 기타자본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. 수익성

가. 당기순이익

■ 2019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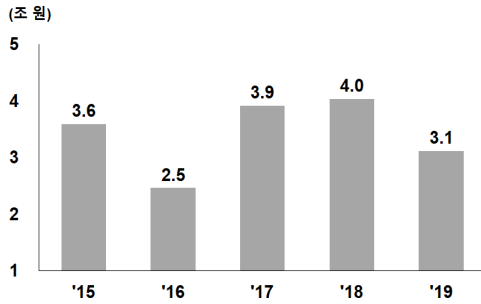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2.7% 감소한 3.1조 원 흑자를 기록함

-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된 데다 2018년 주식 처분이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투자영업이익도 감소함

○ 2019년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1.7% 감소한 2.2조 원 흑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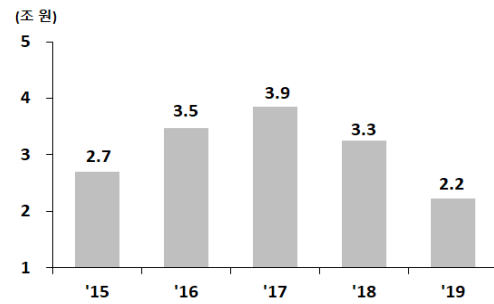
- 보험영업손실은 장기손해보험 판매경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, 자동차보험 손해를 확대 등으로 증가함
- 그러나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처분이익 확대와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증가로 확대됨

〈그림 68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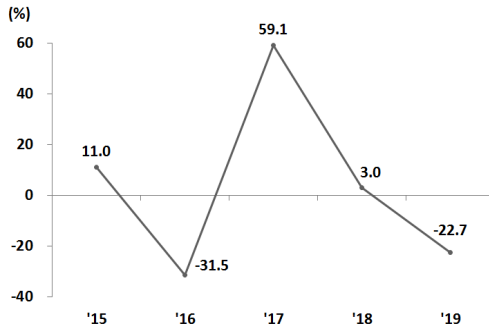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9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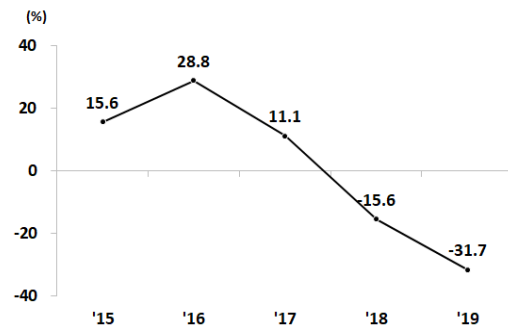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0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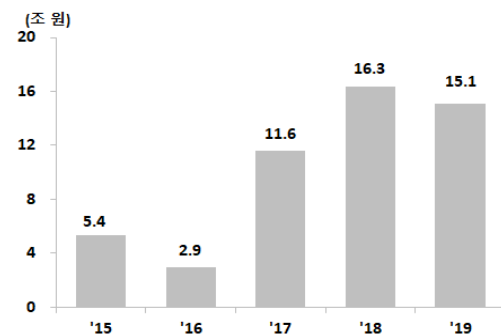
〈그림 71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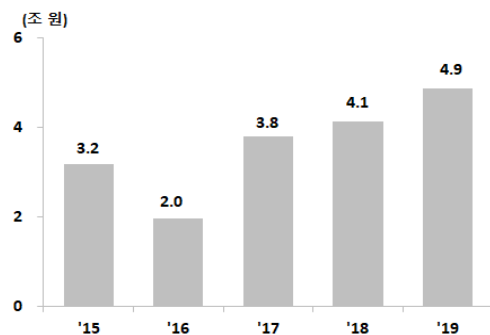
■ 2019년 은행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.7% 감소한 15.1조 원을, 증권 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.2% 증가한 4.9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72〉 은행 당기순이익



주: 1)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
2)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15년 6월 이후 합병됨
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73〉 증권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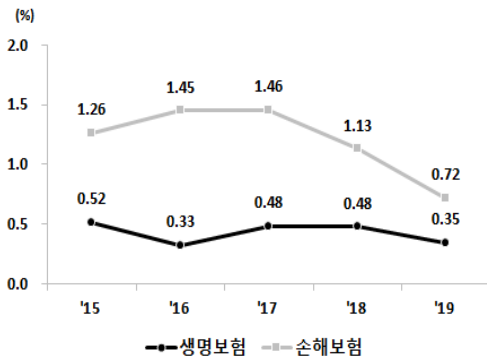
주: 노무라, 다이와, 리딩, 맥쿼리, 신영, 코리아에셋은 3월 말 결산이므로 결산시점을 기간 맞춤함
자료: 금융감독원

나. ROA, ROE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 모두 당기순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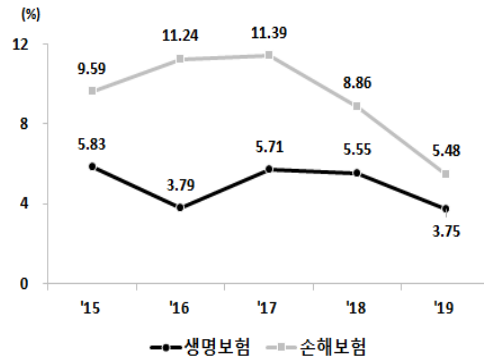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.35%로 전년 대비 0.13%p 하락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0.72%로 전년 대비 0.41%p 하락함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대비 1.8%p 하락한 3.75%를,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보다 3.38%p 하락한 5.48%를 나타냄

〈그림 74〉 보험산업 ROA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5〉 보험산업 ROE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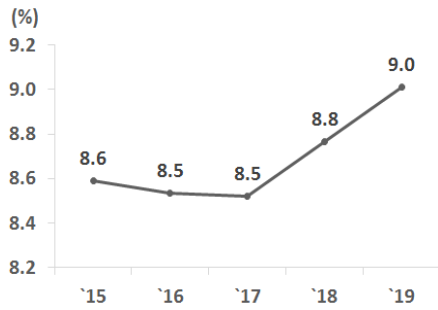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과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,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함

- 생명보험산업 해지율은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으로 2019년 전년 대비 0.2%p 상승한 9.0%를 기록함
- 2019년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0.5%p 하락한 13.1%를 나타냈으며, 이는 사업비 증가 효과보다 퇴직연금 확대에 의한 수입보험료 증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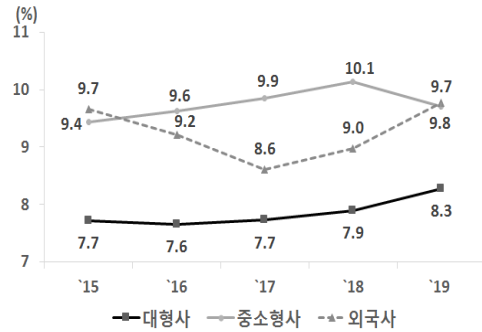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로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19년에는 78.5%를 나타냄

〈그림 76〉 생명보험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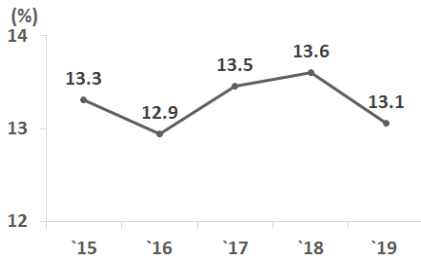
주: 해지율 = (효력상실액 + 해지액) / (연초보유계약액 + 신계약액)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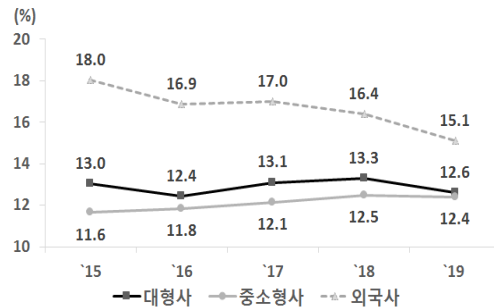
주: 해지율 = (효력상실액 + 해지액) / (연초보유계약액 + 신계약액)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8〉 생명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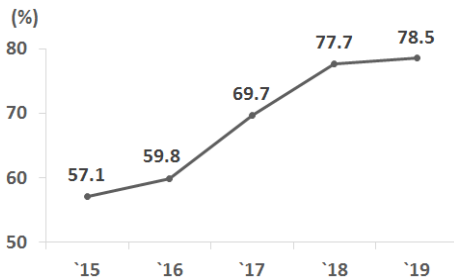
주: 사업비율 = 사업비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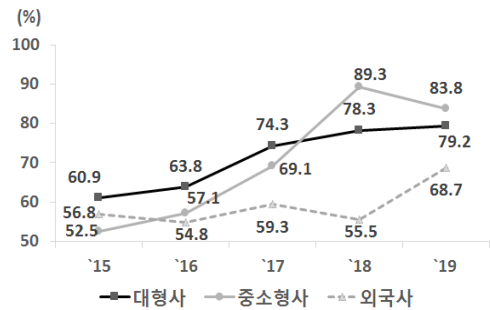
주: 사업비율 = 사업비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0〉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



주: 보험금 지급률 = 지급보험금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1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



주: 보험금 지급률 = 지급보험금 / 수입보험료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

■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 대비 2.7%p 상승한 105.7%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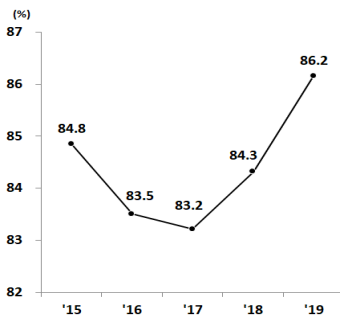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년 대비 1.9%p 상승한 86.2%를 나타냄

-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정비수가 인상 및 취업가능연한 상향조정 등에 따른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2018년 86.4%에서 2019년 92.8%까지 상승함

○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사업비율은 GA를 중심으로 한 장기 보장성보험의 판매경쟁 확대로 19.5%(2018년 18.7%)까지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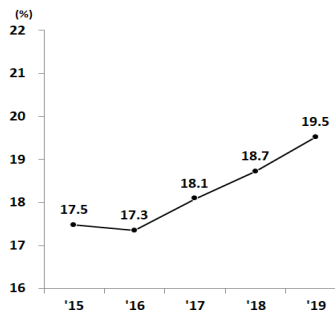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2.0%p 상승한 24.8%를 기록함

〈그림 82〉 손해보험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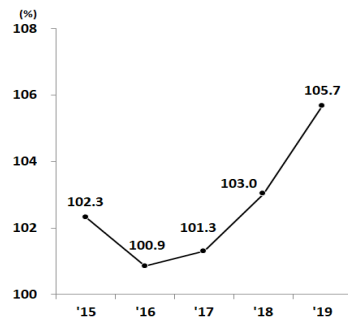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3〉 손해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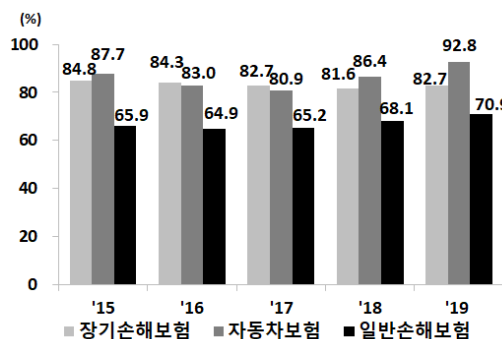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4〉 손해보험 합산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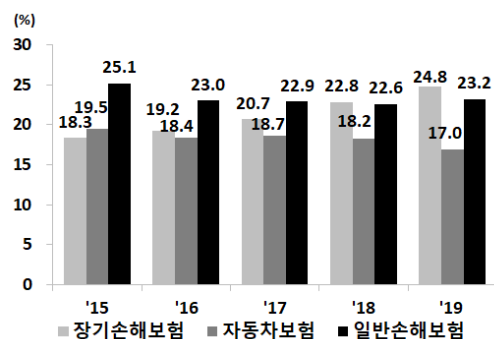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5〉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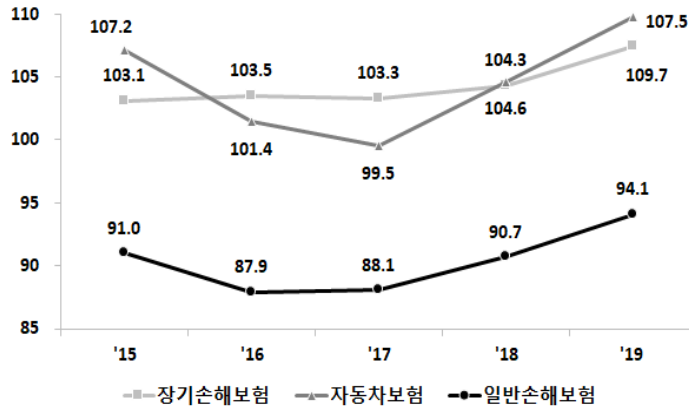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6〉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7〉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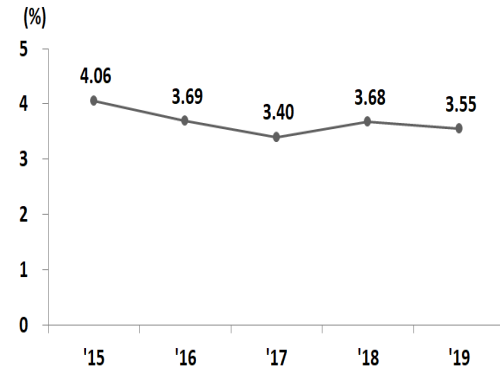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.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

1) 운용자산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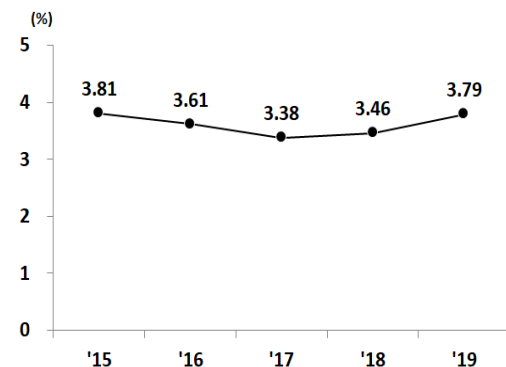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8년 주식처분이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한 반면, 손해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채권 처분 이익 확대로 상승함
- 2019년 생명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대비 0.13%p 하락한 3.55%를 기록함
- 2019년 손해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대비 0.33%p 상승한 3.79%를 나타냄

〈그림 88〉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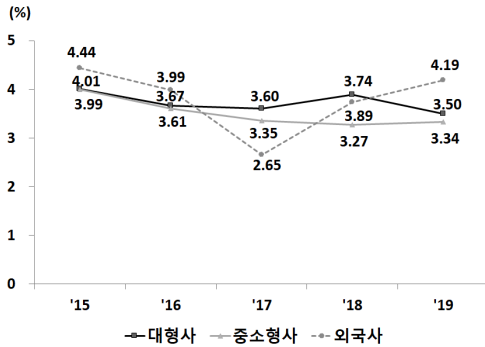
〈그림 89〉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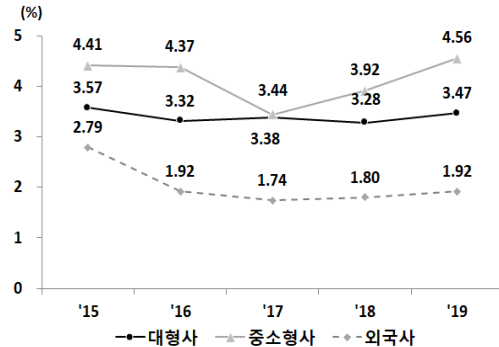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았으며,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세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남

〈그림 9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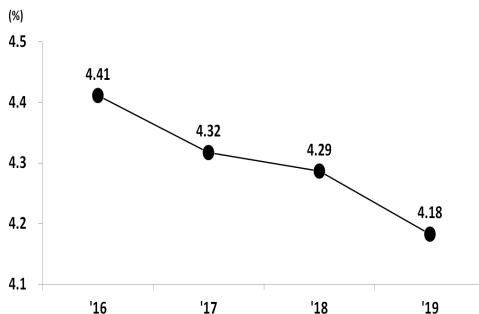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

■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2015년 4.41%에서 2019년 4.18%까지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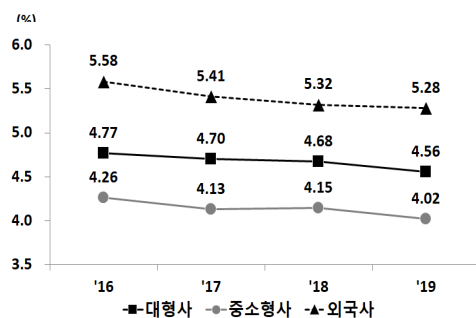
- 최근 4% 초반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3% 중·후반의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
- 그룹별로 보면,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은 외국사의 적립금 평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, 중소형사의 적립금 평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

〈그림 92〉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주: 평균 금리 = (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×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) / 총 보험료 적립금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3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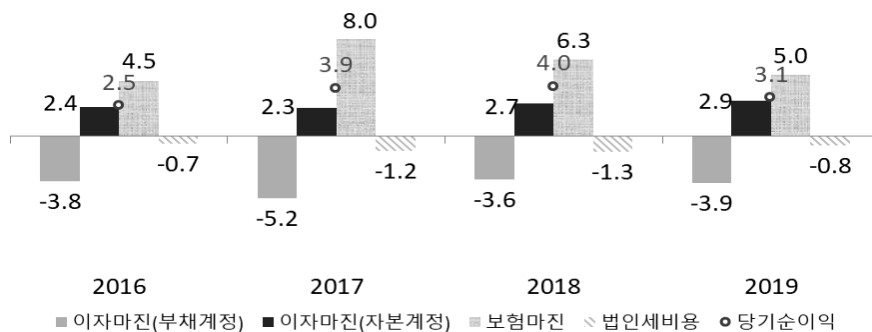
마. 이익구성

1)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■ 2019년 생명보험산업의 이자역마진 규모는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확대되었으며, 보험마진도 감소함

- 자본계정의 이자마진은 전년 대비 0.2조 원 증가하였는데, 이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에 따라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임
- 부채계정의 이자역마진은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전년에 비하여 0.3조 원 확대됨
- 보험마진은 수입보험료 실적 부진과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.3조 원 감소함
- 여전히 보험부채적립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은 이자역마진은 지속되어 저금리 환경에 취약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

〈그림 94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

주: 1) 이자마진(부채계정) =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× (자산운용이익률 -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)

2) 이자마진(자본계정) = 자본 평균 잔액 × 자산운용이익률

3) 보험마진 =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- 이자마진(부채계정) - 이자마진(자본계정)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

가) 당기순이익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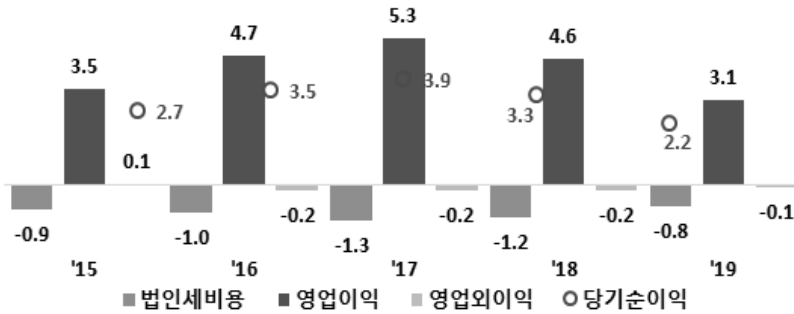
■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 가운데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

- 2019년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2.2조 원이었으며, 영업이익은 3.1조 원 흑자, 영업외이익은 0.1조 원 적자를 기록함

- 최근 손해율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 흑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역시 감소 추세를 보임

〈그림 95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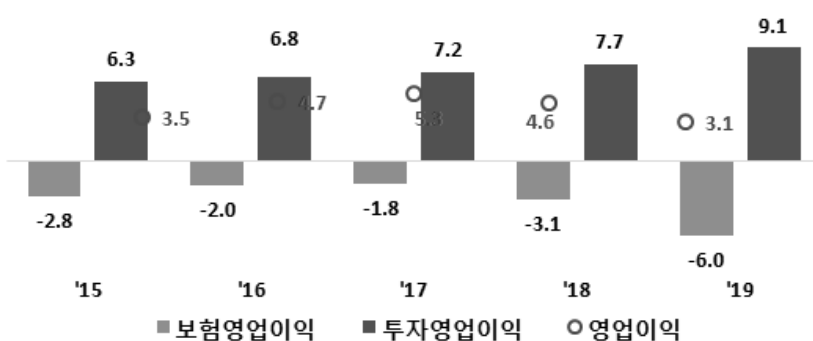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영업이익 구성

-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, 보험영업이익 적자를 투자영업이익 흑자가 보전하는 모습을 보임
- 2019년 영업이익은 3.1조 원이었으며, 보험영업이익은 6.0조 원 적자를, 투자영업이익은 9.1조 원 흑자를 기록함
- 2019년 보험영업이익 적자규모가 손해율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, 투자영업이익 흑자규모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처분이익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확대됨

〈그림 96〉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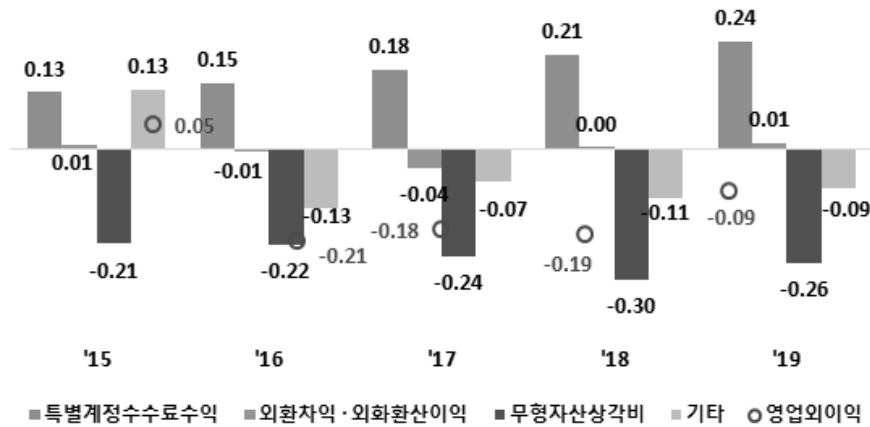
다) 영업외이익 구성

■ 손해보험산업 영업외이익 중 특별계정 수수료 수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

○ 2019년 영업외이익은 0.09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, 이 가운데 특별계정수수료 수익은 0.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.03조 원 증가하였으며 무형자산상각비는 0.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0.4조 원 감소함

〈그림 97〉 손해보험 영업외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- 주: 1) 외환차익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 회수 및 외화부채 변제 시 발생한 환차익을 의미함
 2)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의미함
 3) 무형자산상각비는 개발비, 소프트웨어,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의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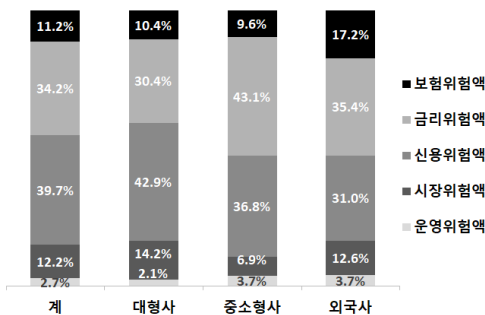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. 리스크⁷⁾

가.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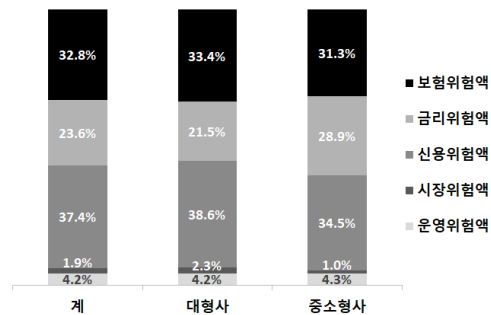
- 2019년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 유형별로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
-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 비중이 42.9%로 가장 높은 반면,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 비중이 각각 43.1%, 35.4%로 높게 나타남
-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, 중소형사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과 보험위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% 이상임

〈그림 9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99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나. 보험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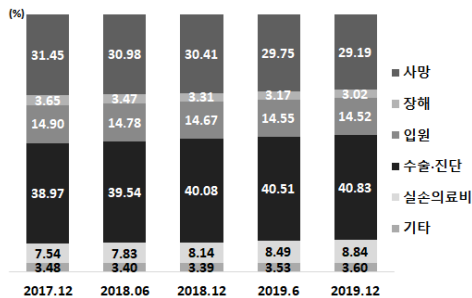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

-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져 중 수술·진단,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, 장해,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

7) 본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며, 이번 호에서는 2019년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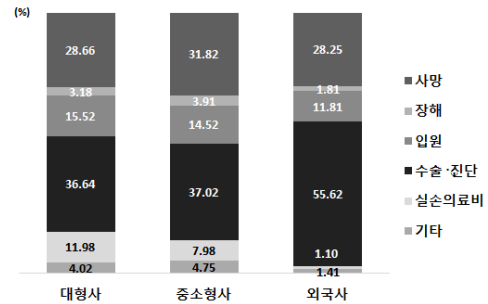
- 수술·진단과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32%p, 0.35%p 증가한 반면, 사망, 장애, 입원 보장 비중은 각각 0.56%p, 0.15%p, 0.03%p 감소함
- 외국사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비해 수술·진단 보장 비중이 55.62%로 큰 편이고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은 1.10%로 작은 편임

〈그림 100〉 보장 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, 장애, 입원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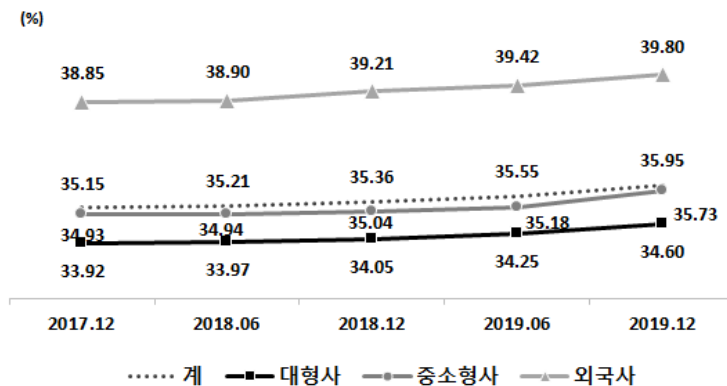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01〉 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, 장애, 입원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- 2019년 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40%p 상승한 35.95%를 기록함
- 중소형사의 경우 직전 반기 대비 0.55%p 상승한 35.73%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, 대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0.35%p, 0.38%p 상승함

〈그림 102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가격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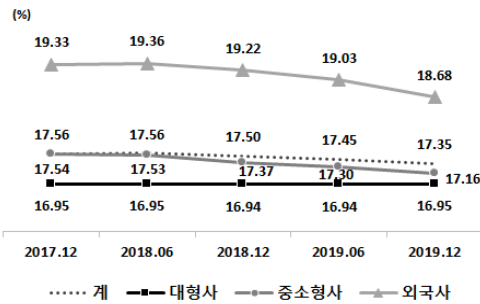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■ 사망, 입원 보장 리스크는 직전 반기 대비 하락한 반면, 장애, 수술·진단, 실손의료비 보장 리스크는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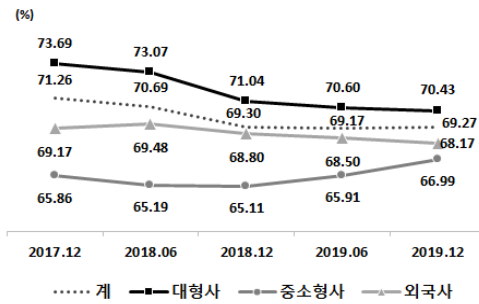
- 사망과 입원 보장의 경우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보험가격위험계수 하락하여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10%p, 0.07%p 하락함
- 또한 장애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17%p, 0.33%p 하락한 반면, 중소형사는 1.08%p 상승하여 전체 0.10%p 상승함
-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, 중소형사(2.17%p), 외국사(1.77%p), 대형사(1.75%p) 순으로 상승함

〈그림 103〉 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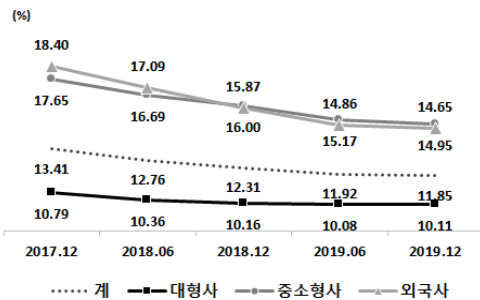
(1) 사망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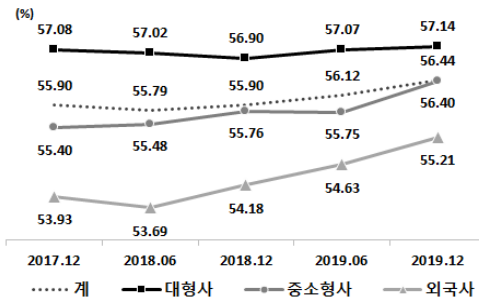
(2) 장애보험



(3) 입원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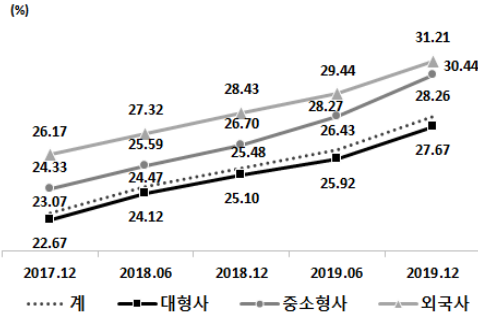
(4) 수술·진단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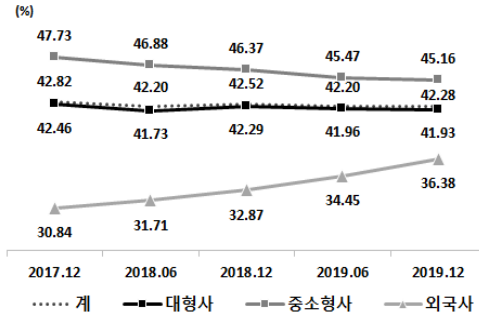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3〉 계속

(5) 실손의료비보험



(6) 기타



자료: 경영공시

2) 손해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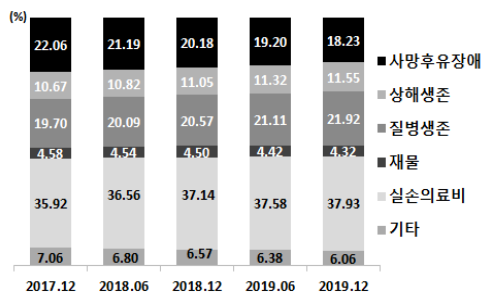
가) 장기손해보험

■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저 중 상해생존, 질병생존,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망후유장애, 재물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

○ 상해생존, 질병생존, 실손의료비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23%p, 0.81%p, 0.35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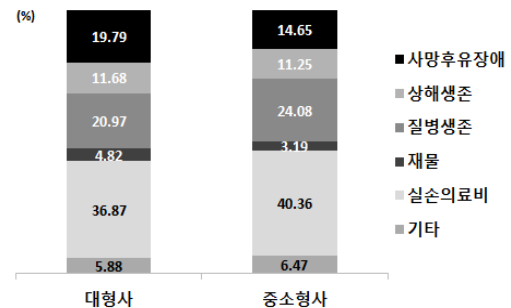
○ 반면, 사망후유장애와 재물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97%p, 0.10%p 감소함

〈그림 104〉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, 상해생존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5〉 회사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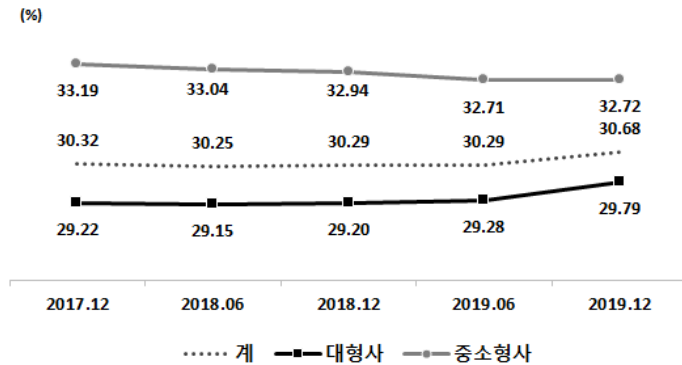


주: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, 상해생존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■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장기보험상품의 판매 증가로 보유위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직전 반기 대비 0.39%p 상승함

○ 중소형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보장 리스크가 모두 축소되었으나 대형사(0.51%p)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견인함

〈그림 106〉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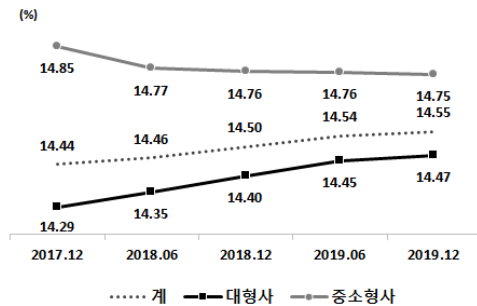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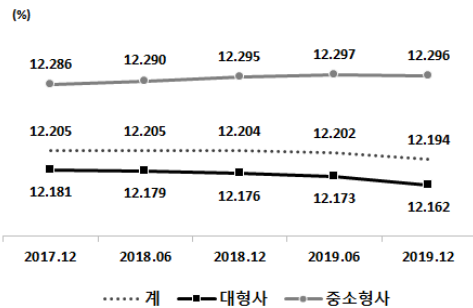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영공시

■ 상해생존, 질병생존, 실손의료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상승한 반면, 사망후 유장애, 재물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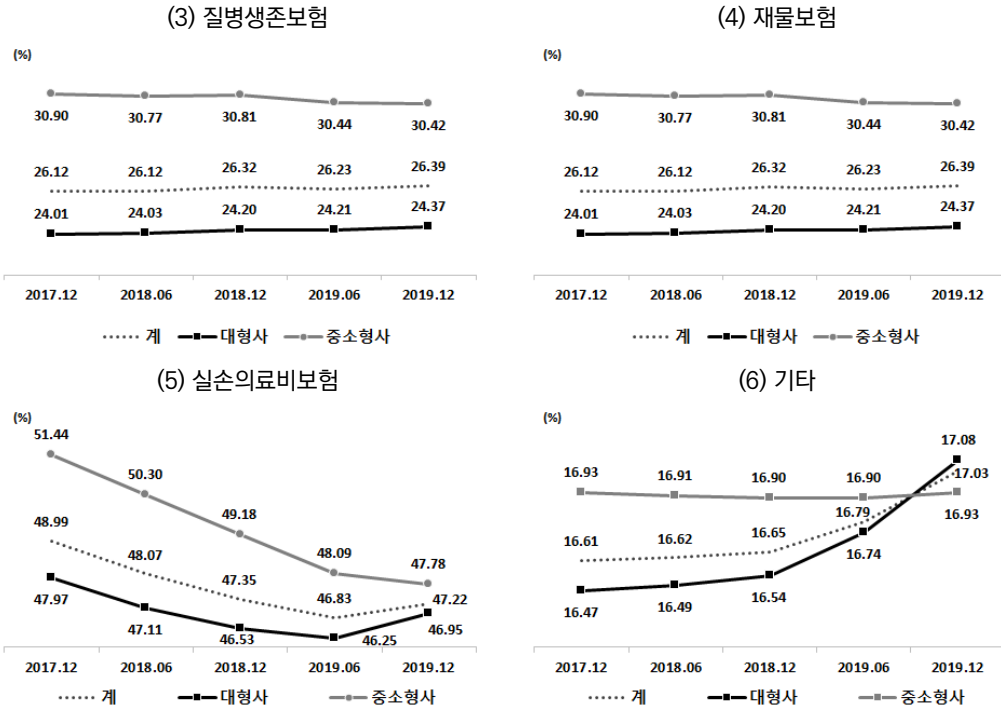
○ 실손의료비의 경우 생명보험산업과 달리 보장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형사의 경우 직전 반기 대비 상승(0.70%p)함

〈그림 107〉 장기손해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
(1) 사망후유장애보험 (2) 상해생존보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7〉 계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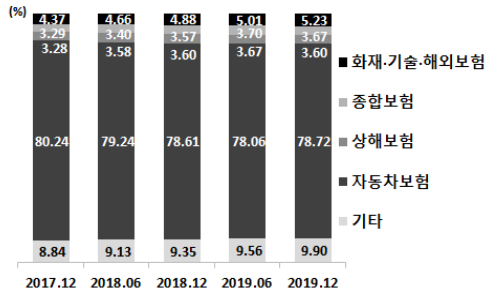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나)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
■ **[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]** 전체 익스포저 중 화재·기술·해외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나, 종합보험과 상해보험 비중은 감소함

- 화재·기술·해외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장 비중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22%p, 0.66%p 증가한 반면, 종합보험과 상해보험은 직전 반기 대비 0.03%p, 0.07%p 감소함
-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중소형사가 직전 반기 대비 0.73%p 감소한 반면, 대형사가 0.78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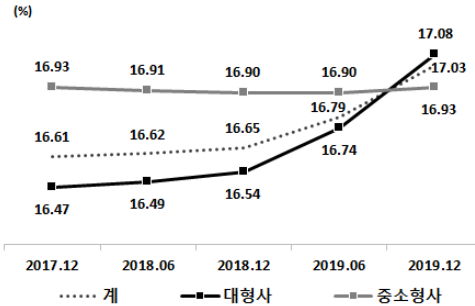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08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

주: 1)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2) 기타에는 해상보험, 근재·책임보험, 기타일반보험, 외국인보험이 포함됨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9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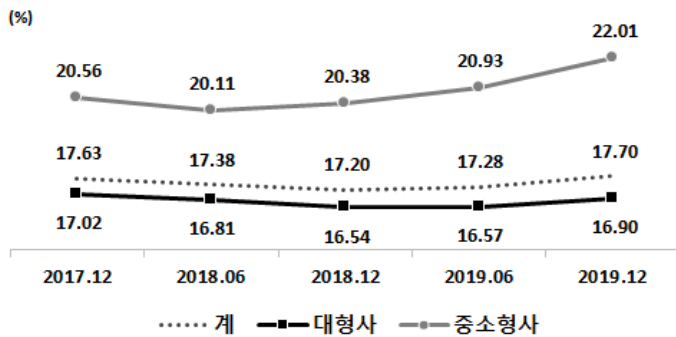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2) 기타에는 해상보험, 근재·책임보험, 기타일반보험, 외국인보험이 포함됨

자료: 경영공시

■ [보험가격위험계수]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42%p 상승하였으며, 대형사(0.33%p)에 비해 중소형사(1.08%p)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됨

〈그림 110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■ [보험가격위험계수]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한 반면, 상해보험, 자동차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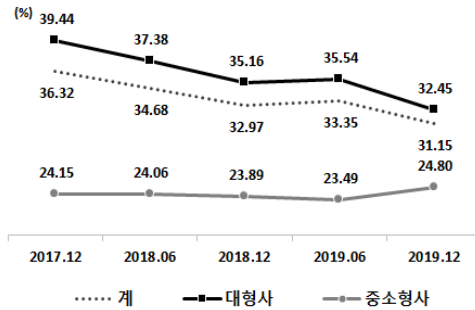
○ 대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보험가격위험계수가 직전 반기 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, 특히 화재·기술·해외보험의 하락폭(3.09%p)이 높게 나타남

○ 자동차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합산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53%p, 1.51%p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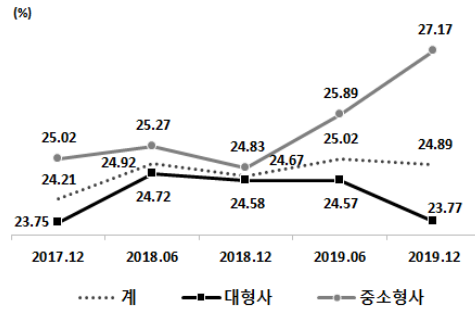
- 상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대형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의 단체상해보험 매출 확대 등으로 직전 반기 대비 2.22%p 상승함

〈그림 111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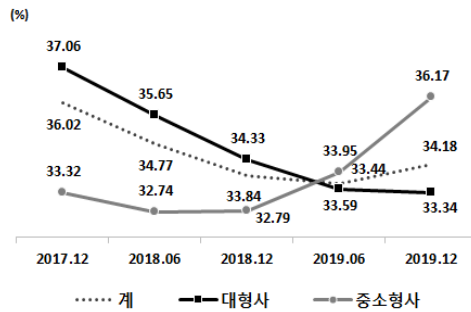
(1) 화재·기술·해외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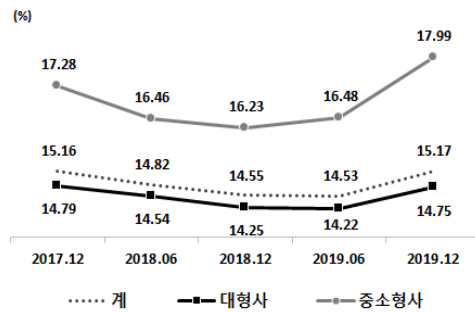
(2) 종합보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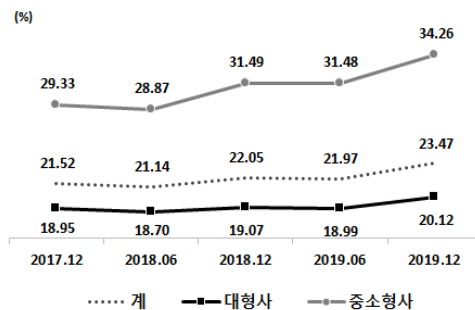
(3) 상해보험



(4) 자동차보험



(5) 기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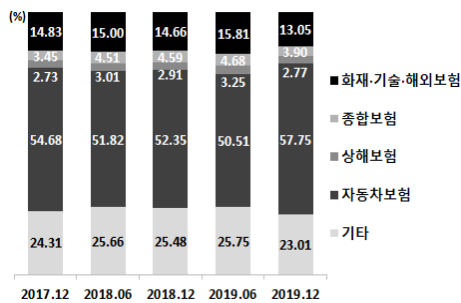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■ [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]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는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감소함

○ 자동차보험 익스포저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7.24%p 증가하였으며, 특히 대형사(7.88%p)가 크게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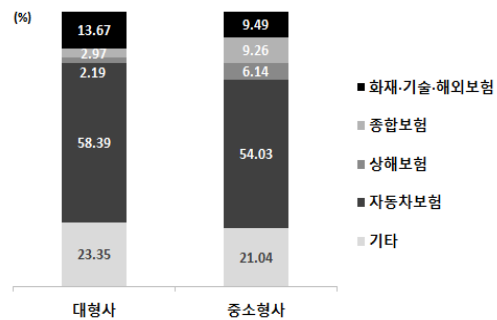
○ 중소형사의 경우 상해보험 익스포저 비중이 0.05%p 소폭 상승함

〈그림 112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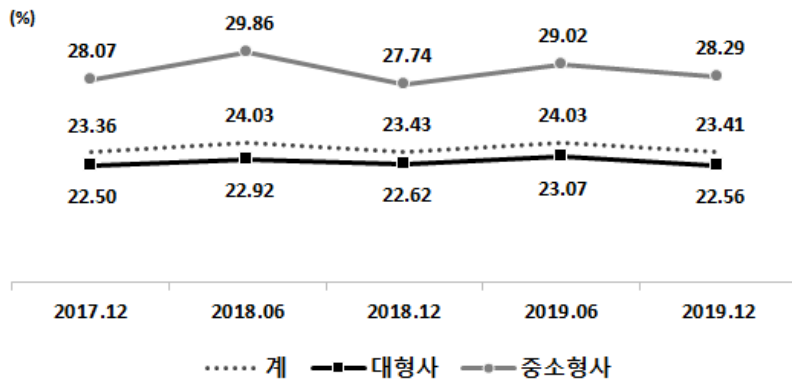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13〉 회사 유형별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
익스포저 비중



주: 위에서부터 화재·기술·해외보험, 종합보험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■ [지급준비금위험계수] 2019년 말 지급준비금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62%p 하락하였으며, 대형사(0.51%p)에 비해 중소형사(0.73%p)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

〈그림 114〉 자동차·일반손해보험 지급준비금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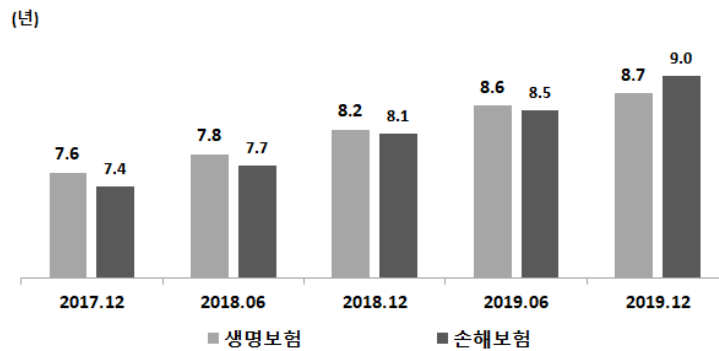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다. 자산리스크

1) 금리위험
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의 자산 듀레이션은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1년, 0.5년 확대됨
- 저금리에 따른 금리 역마진에 대응하여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등 자산듀레이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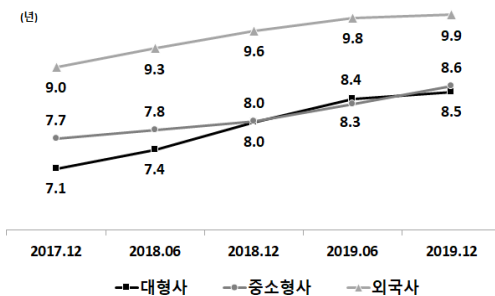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15〉 자산듀레이션 추이

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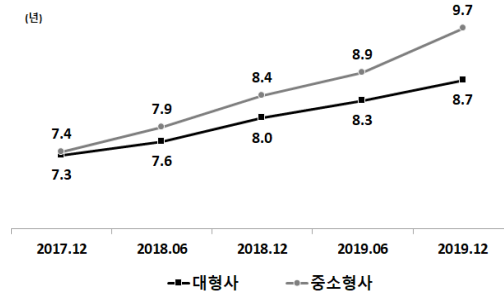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자산듀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
- 생명보험 중소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.3년을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0.8년을 확대시킴

〈그림 11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17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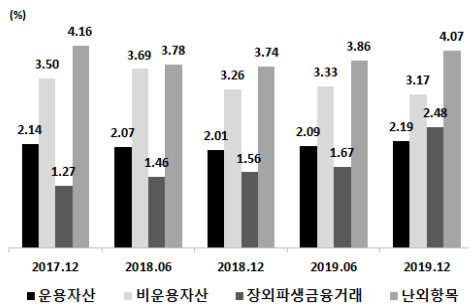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경영공시

2) 신용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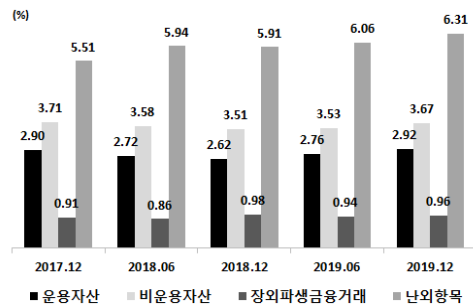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의 신용위험계수는 직전 반기 대비 0.16%p 하락한 반면, 손해보험은 0.16%p 상승함
- 비운용자산의 경우 생명보험은 0.16%p 하락한 반면, 손해보험은 0.14%p 상승함
-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모든 항목에서 신용위험계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118〉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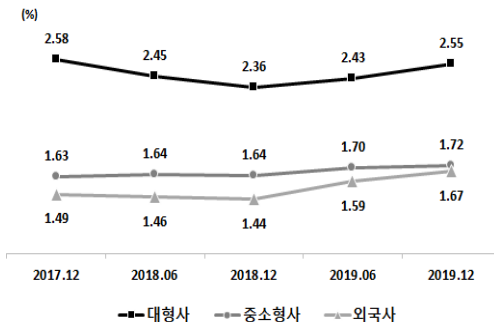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19〉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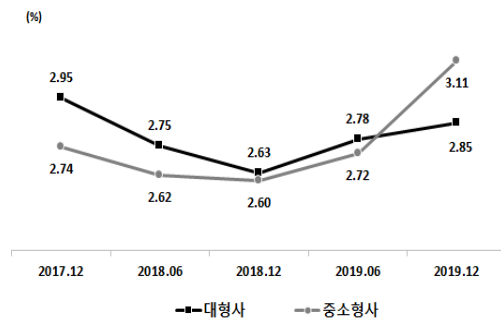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신용위험계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는 직전 반기 대비 0.12%p 상승하였고,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0.02%p, 0.08%p 상승함
- 손해보험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각각 직전 반기 대비 0.07%p, 0.39%p 상승함

〈그림 12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21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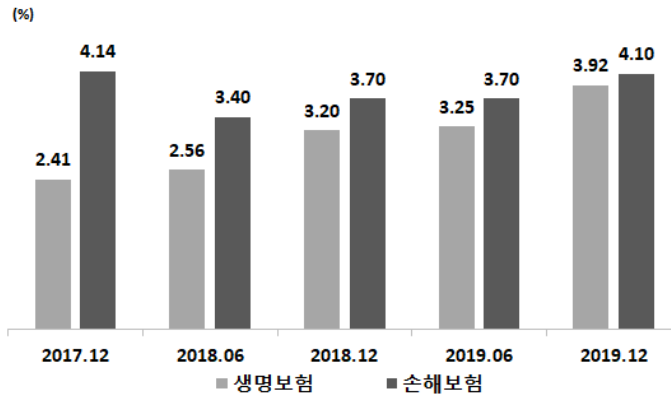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3) 시장위험

■ 2019년 말 시장위험계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생명보험, 손해보험산업 모두 상승함

- 생명보험은 시장금리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⁸⁾
- 손해보험은 수익증권 및 위험대출 비중이 높아 주가 하락, 신용스프레드 확대,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보임⁹⁾

〈그림 122〉 시장위험계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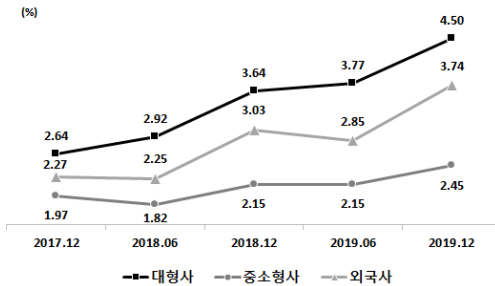
자료: 경영공시

■ 손해보험 중소형사의 경우 시장위험계수가 직전 반기 대비 하락한 반면, 대형사는 큰 폭으로 증가함

8) 신한금융투자(2020. 4. 7), 「생명보험, 신용위험 및 수익성 분석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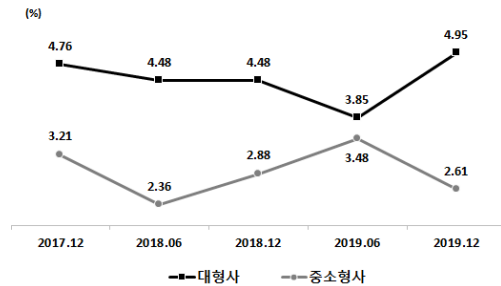
9) 황인창(2020. 4. 13), 「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보험산업 대응」, 『KIRI 리포트』, 제492호, 보험연구원

〈그림 123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24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



자료: 경영공시

라.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(LAT: Liability Adequacy Te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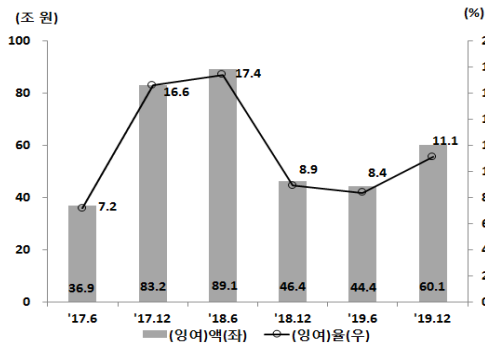
■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(평가대상준비금과 LAT 평가액의 차이) 비율은 2019년 6월 말 8.4%에서 2019년 12월 말 11.1%로 증가함

○ LAT 잉여율은 2017년 6월 7.2%로 낮았으나 2018년 6월 17.4%로 증가하였다 2018년 12월 8.9%로 감소하였음

■ 회사 유형별로 보면 대형사, 중소형사, 외국사의 LAT 잉여율 추이는 비슷하나 대기업은 낮은 수준을 중소형사나 외국사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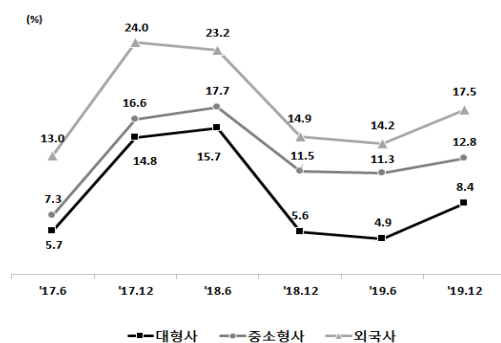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 12월 말 대형사의 LAT 잉여율은 8.4%, 중소형사는 12.8% 그리고 외국사의 경우는 17.5%임

〈그림 125〉 생명보험회사 LAT 잉여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

〈그림 126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LAT 잉여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 경영공시

4. 시장경쟁

가. 시장점유율

1) 생명보험 시장점유율

■ 그룹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19년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,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축소됨

-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8년 19.3%에서 2019년 20.9%로 확대됨
- 반면,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4.2%에서 32.5%로 축소됨
-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6.6%로 전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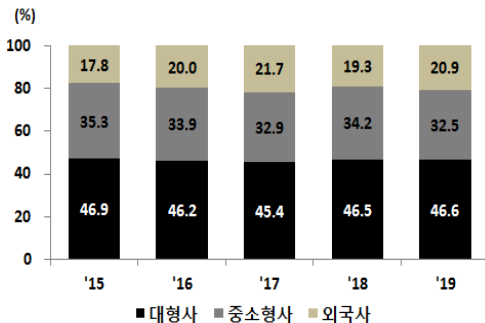
■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19년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

- 이는 일부 외국사가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의 신규 판매를 확대하였기 때문임

■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¹⁰⁾는 1,037로 전년 대비 34 상승하였으며,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800으로 전년 대비 199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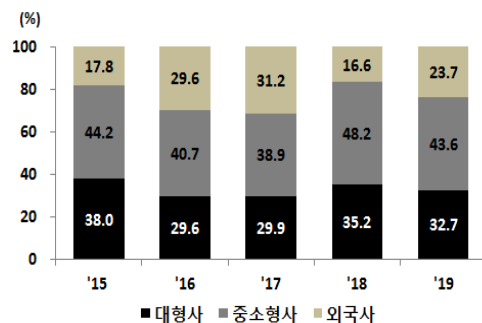
- 특히,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

〈그림 12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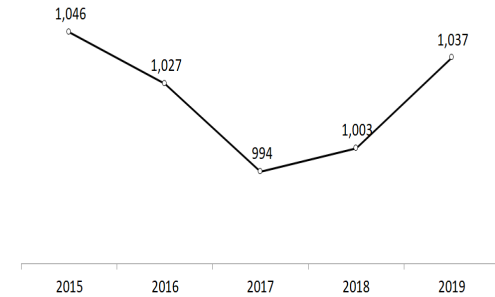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2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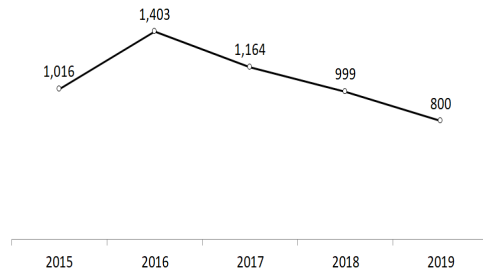
10)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, 일반적으로 지수가 1,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

〈그림 129〉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0〉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 시장점유율

■ 손해보험산업의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확대되고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축소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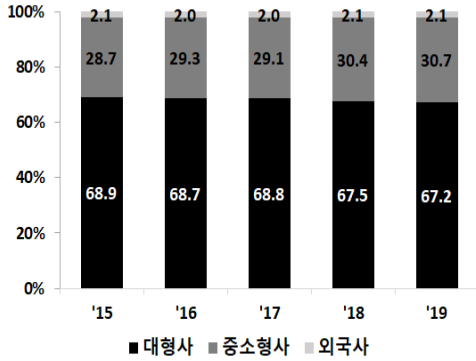
-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5년 28.7%에서 2019년 30.7%로 2.0%p 확대된 반면, 같은 기간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68.9%에서 67.2%로 1.7%p 축소됨

■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19년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, 2019년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됨

-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7년 58.5%에서 2018년 43.6%로 축소되었으나, 2019년에는 46.5%로 전년 대비 2.9%p 확대됨
-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8년 55.8%에서 2019년 52.4%로 전년 대비 3.4%p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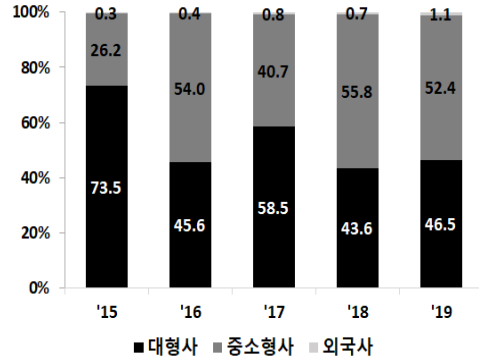
■ 2019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138로 전년 대비 1 상승하였으며,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833으로 전년 대비 167 하락함

〈그림 131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
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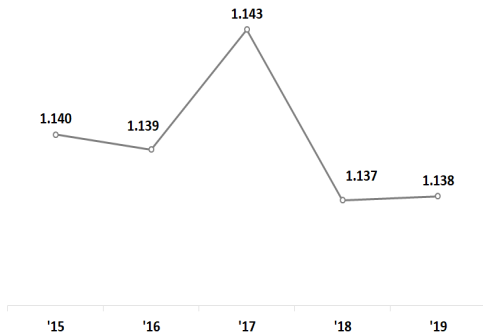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2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
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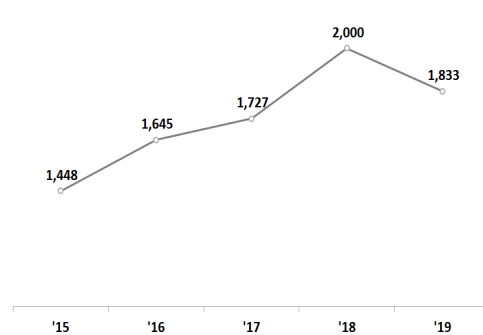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3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4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
허핀달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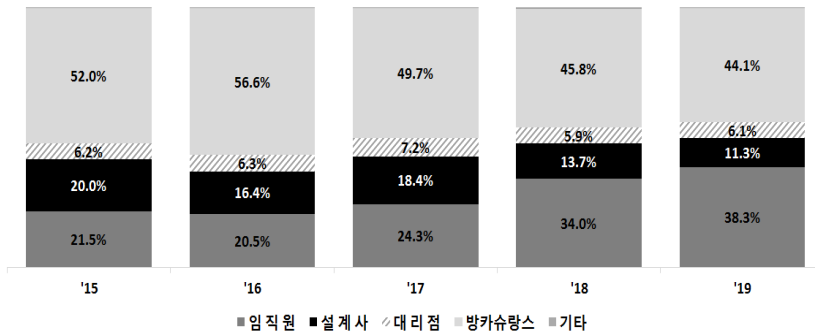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판매채널

1) 생명보험 판매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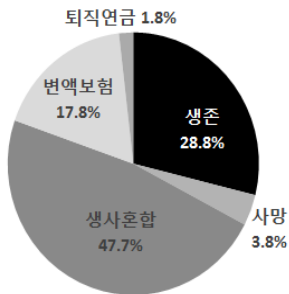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산업의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 비중은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-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주요 판매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임
- 반면, 임직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〈그림 135〉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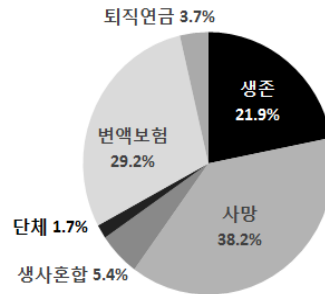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6〉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(2019년)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7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(2019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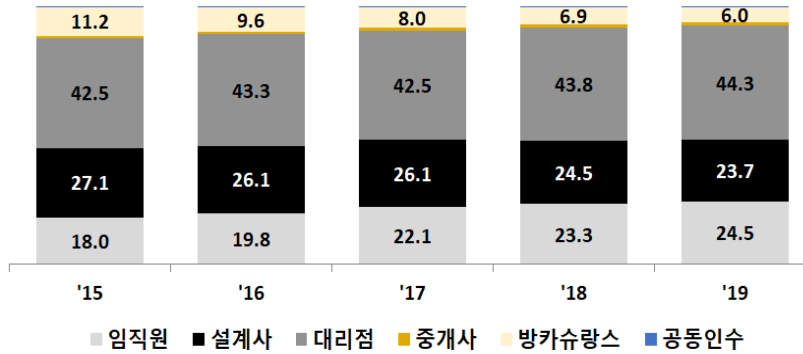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손해보험 판매채널

- 손해보험산업의 대리점과 임직원 채널이 판매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,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판매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
- 대리점 채널 비중은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로 2015년 42.5%에서 2019년 44.3%로 확대되었으며, 임직원 채널 비중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18.0%에서 24.5%로 증가함
- 반면, 같은 기간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은 각각 27.1%, 11.2%에서 23.7%와 6.0%로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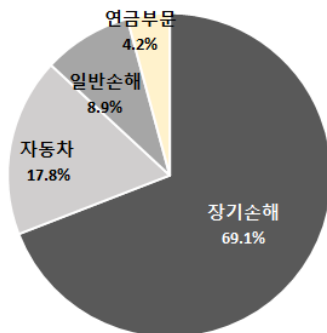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38〉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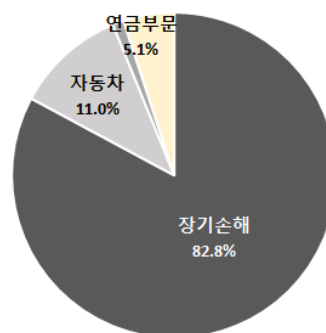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39〉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19년 4/4분기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40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19년 4/4분기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